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3+4

MAR + APR

2024 vol.29



특집

로잔 정신과 한국 교회

사람 사이 이문식 광고산울교회 담임목사

청년시론 청년, 부활을 믿다

문화로 세상 보기 지역사회를 섬기는 문화 청지기

ISSN 2671-8731



Contents

MARCH + APRIL · 2024

시선

한국 교회가 꼭 지켜야 할 로잔 정신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공의를 행하며 은혜를 선포하는 총체적 선교의 축제 | 신국원 04

특집

로잔 정신과 한국 교회

로잔 운동의 정신과 방향 :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 최형근 06

제4차 로잔대회
: 겸손과 정직과 단순성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기를 | 문대원 08

로잔 운동,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화의 전통 | 김선일 10

제4차 로잔대회를 향한 한 복음주의자의 제언
: 우려와 기대 속에서 | 백덕만 12

로잔의 정신과 단순한 생활양식 | 김진혁 14

‘한국 로잔 신학자 콘퍼런스’ 참석 후기 | 이재근 16

로잔의 질문, 화해를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는 가능한가? | 이강일 18

로잔 정신과 한국 복음주의의 사회선교 운동, 역사와 미래 | 정병오 20

4차 로잔대회가 세계와 한국 교회에 정말 기여하려면 | 구교형 22

경청과 상호 배움의 공간으로서의 로잔 운동 | 서동준 24

사람 사이

이문식 광고산울교회 목사 26

섬김의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의 만남, 그리고 감사 | 김반석 30



2024. 3+4월호 | 제29호(통권 244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청년, 부활을 믿다 남명현	32
청년 일터 이야기	
기도없는 삶을 지나며 이현재	34
나의 일용할 원동력 김재완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예수 혁명’의 감동적인 역사를 목격하다 강진구	38
미술을 보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문화 청지기 서성록	40
책을 보다	
한국의 모든 교회 리더들이 필수로 읽어야 하는 책 서나영	42
우리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의 교과서다 서병선	44

교회 路

서울대학교교회 소개	
삶이 예배가 되는 서울대학교교회 박동열	46
소감문 : 다름 속의 조화 Nandin-Erdene, 문지명, 임일근	47

은전한 지성

제6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성경적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	48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II) : 생애와 배경 황영철	50

소식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발행일 2024.4.1 발행인 손봉호 편집장 신국원 편집실무 석중준
 발행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910호
 전화번호 02.754.800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ISSN 2671-8731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집 02.521.147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한국 교회가 꼭 지켜야 할 로잔 정신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1974년에 선포된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가르침에 근거하여 세계복음화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교회의 기본 사명으로 삼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 언약에 동의하는 교회들의 네 번째 모임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한국 교회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만큼 로잔 언약을 꼭 따라야 할 상황에 놓인 교회는 없지 않다.

로잔 언약 형성에는 세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존경하고 신임하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와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함 목사는 복음전파를, 스토틀 목사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나 두 분 모두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교회사역이란 것에 충분히 공감했다. 그런데 복음전파는 전통 교회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해 온 것이지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중요하게 취급한 것은 로잔 언약이 처음이

고 그것이 바로 로잔 언약을 새롭게 특별하게 만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신앙 고백으로 도입한 것은 새로웠을 뿐 아니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결하기도 했다. 물론 복음 자체도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의 올바른 길잡이고, 따라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12:47),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 동안 교회가 복음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거대한 세상 세력과 싸워야 하는 과정에서 교회와 세상을 엄격하게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굳어졌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것 자체를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하는 것으로 폄하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 흐를수록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자연에서 벗어나 인위적이 되고 사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안전, 건강, 교육, 학문, 예술, 가치관 등 그 어느 분야도 사회 혹은 정치의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이 없게 되고, 우리 개인의 정체성마저 사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인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복음의 적용과 전파조차도 사회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주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그동안 로잔 언약의 한 쪽 면, 즉 복음전파만 중시하고 그 다른 면, 즉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그런 무관심은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무지와 무비판을 자아내어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미국 복음주의자들 절대다수는 46명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정치학자들이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온갖 비도덕적 행위와 91개에 달하는 불법으로 기소된 트럼프를 지지해서 민주주의 보루로 알려진 나라가 한국보다 한 수 낮은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했다. 또한 복음주의가 주류인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열렬하게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치관에 감염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돈을 좋아하지만 돈 좋아하는 것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은 불교나 천주교보다 개신교를 더 조롱하고 불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의 복음 사역조차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 문화 전반의 세속화 탓도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특히 젊은 신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4차 로잔대회가 한국 교회에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한다.

그동안 사회와 교계의 지탄을 받은 교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대교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

다. 한국의 대교회들은 대체로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적 성장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로잔 정신에 충신했다 하기 어렵다. 한편 조금이라도 로잔 언약에 따라 사회를 정의롭고 투명하게 개혁해 보려고 안간 힘을 쏟아 온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시민단체들은 대부분 배제되었다.

거기다가 여비와 숙박료를 제외하고라도 350불에서 2000불이나 되는 참가비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교회 교역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참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세계적인 대회만큼 경비가 클 수밖에 없고 특히 가난한 나라 교회 대표들의 참석을 위해서는 막대한 액수의 여비와 체류비를 보조해야 하므로 대형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십시일반으로 경비를 기꺼이 나누어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이런 상황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말았다.

상황이 그러한 데도 이번 대회가 로잔 언약의 본래 정신을 확실히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재강조해서 한국의 대교회 지도자들이 대오각성하고 한국 교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 돈과 권력의 우상이 허물어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정의가 살아 움직이도록 한국 교회 전체가 나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공의를 행하며 은혜를 선포하는 총체적 선교의 축제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9월에 개최되는 제4차 서울-인천 로잔대회는 개신교 최대의 공의회입니다. 복음을 삶의 전영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총체적 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는 귀한 모임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기도로 응원합니다. <시선>은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던 로잔언약의 정신이 재확인되고 실천의 계기를 만들어 주길 당부합니다.

<특집> 글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료를 드리지 않는 작은 소식지에 정성껏 글을 써 주신 것은 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귀한 글들을 통해 로잔대회를 잘 알지 못했던 이들도 이 모임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함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우며 기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모쪼록 다양한 제안이 로잔의 정신을 굳건히 세우는 건설적 논의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번 대회 총무로 섬기는 최형근 교수님은 로잔의 정신이 과거 선교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고백에서 총체적 복음 사역으로의 전환임을 소개하며, 이번 대회가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같이 섬기시는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확인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초청합니다. 김선일 교수님은 로잔대회가 그간에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총체적 선교 원칙을 세우며 발전해

왔듯이 금번대회도 본래의 정신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덕만 교수님은 금번 대회를 향한 기대와 우려 속에 로잔 언약 5항의 의미와 가치를 한국 상황에서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본질 상실로 위기를 자초한 한국교회를 치유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김진혁 교수님은 9항의 '단순한 생활양식'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며 로잔의 정체성과 정신을 우리 시대에 참되게 구현할 친환경적인 단순한 생활양식에 대한 실천 방안을 찾아주길 기대합니다. 이제근 교수님은 로잔신학자 콘퍼런스 후기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남북한 화해나 저출산과 같은 의제가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정병오 기운실 대표님은 로잔의 정신을 실천해온 국내 기구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총체적 복음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활로를 열게 될 때 이를 개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강일 소장님은 로잔의 정신을 '화해 실천의 선교적 교회'라고 요약하며 교회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로 재위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구교형 '성서한국' 이사장님은 이번 대회가 이 세대에 적합한 선교방식과 과제를 진지하게 묻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잔치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와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동준 박사님은 로잔이 “경청과 상호 배움의 공간”임을 상기하며 금번 대회 또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사이>에서는 이문식 목사님은 평생 여러 교회 개척을 통해 건강한 목회와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원로목회자로 로잔의 역사에 비취 이번 대회에 향한 교계의 바람을 넓은 시각에서 펼쳐 주셨습니다. <섬김의자리>엔 ‘막내’ 편집위원 김반석 형제가 진보적 사회학을 공부하며 씨름하던 중 동역회의 책모임과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계기로 신앙과 학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살려 비전을 새롭게 하게 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청년시론>에서 남명현 형제는 종교학도로 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로 섬기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새롭게 믿고 성숙해지는 경험을 들려줍니다. <청년일터>에서는 이현재 형제가 항공기 설계작업 업무를 익히는 신입사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나눕니다. 김재완 형제도 케임브리지대학 유학 생활에서 학문적 도전과 씨름하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일상의 긴장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주는 “일용할 원동력”임을 증거합니다.

<영화를 보다> 강진구 교수님은 <지저스 레볼루션>이 보여주는 1970년대 초 미국 젊은이들의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소개합니다. 히피와 MZ 세대의 공통점은 다른 문화와 세계관과 종교에 대한 무관심임을 지적하며, 이런 영화도 상업적 흥행이 가능한 점도 기독교 문화 증진 방안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술을 보다>엔 서성록 교수님이 예술을 통한 사회적 섬김을 실천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혜영, 신혜선 작가의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목회자와 예술가 사모님이 교회 부속건물에서 아이들에게 유리조각 모자이크 교육으로 시작해 청소년 멘토링과 무료예술교육 터로 발전시킨 ‘마을목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책을 보다>에선 서나영 교수님이 동역회의 교과서였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의 최신 개정판을 새롭게 꼼꼼히 읽고 자상하게 소개합니다. 한동대 서병선 명예교수님께서 최용준 교수님의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2>을 다양한 사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는 안목을 주는 책으로 추천합니다. 두 책이 하나의 좋은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로>에선 박동열 교수님이 서울대학교회를 소개합니다. 기독교학생회, 기독교수협의회, 선교단체 연합회, 기독교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순차 통역 예배와 오후의 대학원생 예배 공동체로 다름속의 조화를 보여주는 유학생 동아리 회장 Nandin-Erdene, 문지명, 임일균 학우의 교회 생활에 대한 나눔도 전합니다.

<온전한 지성>은 대학원생 독서 콘서트 보고와 함께 황영철 목사님이 지난 호에 이어 판 프린스터리의 생애를 배경으로 왜 그가 유독 프랑스혁명을 비판하게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혁명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임을 거부하고 인간을 주인 삼는 모든 사상과 운동의 모델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다가오는 기독교 대축제인 서울-인천 로잔대회를 섬기는 분들과 이 행사가 세계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 분들께서 교계의 소망과 고언을 나누어 주신 것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수고를 마지않고 애써 주신 편집위원들과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로잔 운동의 정신과 방향 :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최형근 (서울신대 선교학 교수 /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어떤 운동의 정신이나 기풍(spirit/ethos)은 그 운동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지향하는 비전과 방향성을 규정한다. 로잔의 정신은 과거 교회의 선교에서 자행된 잘못과 실패를 고백하는 겸손과 회개의 정신이었다.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믿는 것이 마치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하는 말이라든가 주재님은 말로 들린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 로잔 운동의 정신에 드러난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교회가 추구하는 나라는 세상의 제국이나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마 6:33)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과거의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일하심을 감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총체적 성격을 드러낸다.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

는 이야기이다. 복음은 오늘날 수많은 OTT(over-the-top)를 통해 판매되는 ‘스토리텔링’(storyselling) 현상에서 나오는 허구적이고 신화적인 ‘사이다 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이다. 성경적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빌리 그래함(Billy Graham)과 존 스토틀(John Stott), 50년 전 로잔 운동을 시작한 두 사람이 마음에 품었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복음 전도자이며 목회자인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울부짖는 신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작한 로잔 운동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복음을 이해하고 일상의 삶에서 구현하려는 몸부림 없이는, 복음의 전함이란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

빌리 그래함이 이해한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안타까움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파토스’를 상기시키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적 과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즉, 빌리 그레함의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은 로잔 운동을 일으키고 지속시킨 핵심요소였다. 이와 더불어 1950년 런던의 울소울즈 교회의 교구사제로 임명된 존 스토틀트는 로잔 운동에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운동으로 이끈 인물이었다. 목회뿐 아니라 '복음주의 학생운동'(IFES)을 이끌며 줄곧 강조한 성경과 세상에 관한 존 스토틀트의 '이중 경청'(double listening)은 로잔 운동의 신학적 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복음과 문화에 대한 그의 균형 잡힌 시각은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창조적 긴장을 총체적으로 다루며, 특히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통한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유산을 남겼다.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틀트는 여러 신학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헌신이라는 공통분모와 우정과 상호 존중을 통해 로잔 운동을 확산하고 지속적인 촉매제였다.

지난 50년 동안 세 차례의 로잔대회(congress)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기도하고 교제하며 선교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신과 분위기(ethos)를 반영했다. 로잔 운동의 정신과 비전 그리고 성경적·신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위임령을 포괄하는)과 연관된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한다. '대위임령'이라는 과제의 완수를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인 '겸손, 정직, 단순함'(Humility, Integrity, Simplicity)이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로잔 운동이 지난 50년간 지

탱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원리를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용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오늘날 세계 교회 앞에는 세상이 제시하는 도전적 의제들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직면한 장애물과 도전을 숙고하고 행동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제4차 로잔대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모든 사람과 지역을 제자 삼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형성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 다루어질 복음과 교회와 세상에 관련된 이슈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함으로 모든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지구촌은 생태계 위기, 전쟁, 지진, 기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구교회의 쇠퇴와 함께 한국 교회도 가난한 성도와 이중직 목회자의 증가, 절대 인구 감소와 노령화, 젊은 세대의 탈교회화와 탈종교화 현상의 심화, 동성애와 낙태 같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사회문화 전반에 만연하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이러한 교회 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9월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개신교 한국 전래 140년이라는 매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과 침체를 경험하는 한국 교회에 매우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새로운 개혁과 갱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형근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며,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와 신학 위원을 역임하고 한국로잔위원회 총무와 제4차 로잔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B.A.)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M.)에서 수학하고 미국 애즈베리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선교사 멤버케어 네트워크(KMCN) 대표와 선교사 멤버케어 센터인 '하트스트림'(Heartstream) 한국센터 공동대표로도 섬기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 : 겸손과 정직과 단순성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기를

문대원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총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로 시작된 로잔 운동은 지난 50년간 세계 선교를 위한 인플루언서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제1차 로잔대회의 공식문서인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은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자유주의 신학과 대비되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 20세기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불리는 로잔 언약은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전도의 본질, 교회와 전도, 전도와 문화 등 선교의 본질과 현재 상황, 향후 과제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기술했다.

무엇보다도 로잔 언약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했다. 로잔 언약 3항은 “우리는 모든 종류의 혼합주의를 거부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식의 대화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손상시키므로 거부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타 종교와의 대화를 추구했던 WCC와 로마 가톨릭교회는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를 강조한 선교 운동을 펼친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한 로잔 운동은 특별계시(special revela-

tion)를 강조한 선교 운동을 펼쳐갔다.

로잔 운동은 초기부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협력적 관계임을 강조해왔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먼저인가, 빵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거부한다고 빵을 주지 않는 선교사는 없을 것이고, 복음을 도외시키고 빵만 주는 선교사도 없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궁극성’(ultimacy)이라는 개념이 ‘우선성’(priority)이라는 개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선교사역에서 항상 첫 번째 임무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순서를 논쟁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지향하는 동일한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선교사역의 목표는 소망 없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로잔 운동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인 동시에,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공동개최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의 다양한 영역을 조망하며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 선교의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며 모든 교회와 영역을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들을 세우는 대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번 로잔대회의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이다. 이것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로잔 운동의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다. 선교의 본질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로잔 운동은 다방향(multi-directional)으로 진행되는 현대 선교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한 차원 더 깊은 선교적 협력과 파트너십이 일어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계 선교 운동의 변화에 주목한 국제로잔위원회는 리더십 구성과 참가자 선정에 있어서 현재 세계교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의 프로그램 위원장은 홍콩 출신의 패트릭 펑(Patrick Fung, 국제 OMF 대표)이 맡고 있으며, 다수의 아시아 선교 학자들과 선교 리더들이 신학위원회와 프로그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비교적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과 기도 운동을 경험했다. 지난 세기에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의 거센 도전 앞에서 고전했지만, 한국 교회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견고한 복음주의 신앙 위에서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도전 앞에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개교회주의, 성장주의, 물량주의는 한국 선교 운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4차 로잔대회는 한국 교회의 승리주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단기간에 성취한 부흥과 선교 운동의 모델을 다른 국가에 이식(transplant)하는 시간도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겸손(humility)과 정직(integrity)과 단순성(simplicity)을 회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깊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준비위원회의 기도와 소망이다.

로잔 운동은 세계 복음화라는 확고한 비전을 위해 자발성과 유연성, 협력과 동역에 근거한 글로벌 선교 운동의 플랫폼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한 복음주의 선교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로잔 운동은 영적인 활력과 창의적인 전략들을 제공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한국 교회가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서 로잔의 정신인 겸손과 정직과 단순성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안에 있는 승리주의·영웅주의적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겸손하게 협력하고 동역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문대원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이자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총무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B.A.), 미국 고든콘웰 신학교 목회학석사(M.Div.), 보스턴대학교에서 세계기독교역사 전공으로 박사(Ph.D.)를 받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원, 한국선교연구원(KRIM) 상임연구원, 부룬디 International Leadership University 학장을 역임했다.

로잔 운동,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화의 전통

김선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대회(World Evangelization Congress)가 열리던 당시 한국 사회는 유신정권에 의해서 긴급조치 1호~4호가 속속 공포되던 엄혹한 시절을 겪고 있었다. 복음주의 선교역사에 분수령이 되는 이 대회에 한국에서도 70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모이는 세계적인 대회였지만, 한국의 참석자들은 귀국 후에도 한동안 로잔대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다. 1차 로잔대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의제가 바로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라는 당시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전통적 선교 개념에 거센 도전이 가해졌다.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와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사회정의와 인간화로서의 선교를 내세우며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전도와 개종 유예의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응하여 복음주의자들은 시카고 휘튼 선

언과 베를린 전도대회를 통해 복음 사역의 공동전선을 모색하며 1974년의 스위스 로잔대회로 총집결하기에 이른다. 로잔대회의 셋째 날 저녁, 라틴 아메리카의 복음주의자들인 르네 파디아야(René Padilla),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Costas)와 같은 이들이 주축인 '급진적 제자도 그룹'은 비상 모임을 가져 최종 선언문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을 주장했다. 로잔선언문 작성 책임자인 존 스토틀(John Stott)는 이들에 공감하며 대회 마지막 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공히 강조하는 역사적 로잔 언약의 합의에 이르게 한다.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에서 사회적 행동이 곧 복음 전도여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제안도 있었지만, 로잔의 합의는 복음 전도의 논리적 우위성(primacy)을 유지하되 억압받고 헐벗는 이들의 현실에서는 먼저 그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해야 함을 인정했다.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 반대되지 않는 총

체적 복음 사역의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이다. 로잔 언약을 위한 토론과 합의는 복음주의 신학 지형에 또 다른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것은 더 이상 서구의 신학과 선교에 종속되지 않는 자민족 신학화의 과제였다. 분과발표에서 당시 이화여대 총장인 김옥길은 “제3세계의 사람들은 서구의 경제, 정치, 문화가 침투하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민족적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¹ 라틴 아메리카의 급진적 제자도 그룹이 강력하게 제안했던 복음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각성은 비서구권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서 복음을 통찰할 수 있는 지평을 연 것이다. 로잔 운동의 핵심 취지는 우리 시대가 당면한 선교의 과제와 전략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1차 대회는 그 기간 동안 불신자 200만 명이 늘어나는 통계를 대회장에 전시하며 영혼 구원의 소명을 상기시켰다.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과 피터 와그너(Charles Wagner)는 문화에 따른 E-3 선교 전략을, 랄프 윈터는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이라는 개념을 로잔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는 대륙이나 국가의 단위로 선교에 접근하던 방식에서 약 16,000개의 숨겨진 종족들을 대상으로 선교의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획기적 발상이었다. 물론 오늘과 같은 글로벌, 다문화 교류 시대는 20세기 후반의 종족 개념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재된 미전도인들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이후로도 로잔은 난민, 다문화, 이슬람, 일터, 명목상 기독교, 디지털 문화, 다음세대 등의 부상하는 쟁점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제기해왔다.

1989년 2차 마닐라 대회는 개인 구원으로 회귀했고,

2010년 3차 케이프타운 대회는 사회 구원에 치중되었다는 상반된 평가들이 있다. 허나, 2차 대회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의 균형 잡힌 관점이 오히려 더욱 정착되었고, 3차 대회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주도로 전도의 궁극성(ultimacy)이라는 완숙된 개념과 더불어 복음의 중심성을 재확인했다.² 한때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강조가 복음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빌리 그래함은 급진적 제자도 그룹의 주장은 오늘날 복음 전도의 과제를 분석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했다. 이후 그의 사역은 국제평화, 핵무기 감축, 공산권과의 관계회복까지 포함하였다. 로잔대회에서 전통적 복음 전도의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했던 와그너 또한 급진적 제자도 그룹과의 논쟁을 거쳐, 가난과 억압, 정의와 평화의 문제는 모든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야 할 사명임을 천명했다.

로잔 운동에는 이러한 치열하고 풍성하며, 그리고 상호 존중과 배움의 복음주의적 대화의 DNA가 흐르고 있다. 해묵은 대립 구도로 서로를 ‘전도주의자’로, 혹은 ‘사회구원주의자’로 규정짓는 자세는 로잔의 전통과 어긋난다. 로잔은 복음주의자들 안에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력하는 곳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선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선교와 문화 교수이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실천신학(전도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저서로 <전도의 유산>(SFC),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새세대), <현대 한국의 문화 변동과 기독교의 성장>(CLC)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SFC),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IVP), <루이스와 웨퍼>(IVP),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다>(IVP) 등 20여 권이 있다.

1. David Swartz, *Facing West: American Evangelicals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110.
 2. 존 스토틀 ·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란 무엇인가』 (IVP, 2018), 97.

제4차 로잔대회를 향한 한 복음주의자의 제언 : 우려와 기대 속에서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백향나무교회 담임목사)



1974년, 영미 복음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소중한 구심점 역할을 해온 로잔대회가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국 교회는 제1차 대회 때부터 꾸준히 참여해왔고, 로잔 정신을 국내교회와 학계에 소개·실천하기 위해 힘썼다. 그 영향과 결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할 순 없지만, 근본주의와 에큐메니컬로 양분된 한국 교회 안에서 일군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라는 로잔 언약(제5항)을 균형있고 책임있게 실천하려고 분투해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로잔대회는 지난 50년간 한국 교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려와 비판, 갈등의 모습도 보인다. 그동안 로잔과 특별한 관계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형교회들, 심지어 로잔 정신과 상반된 행보를 보였던 인물들이 대회를 주도한 반

면, 오랫동안 온갖 비판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로잔 정신을 실천해온 이들이 배제되면서, 비판과 우려,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를 바라보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이번 대회는 ‘로잔 언약 제5항’의 의미와 가치를 한국적 맥락에서 깊이 성찰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 왔고, 때로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이런 반성과 결단은 당시 복음주의자들이 에큐메니컬 운동과 근본주의 사이에서 양극단을 배제하면서, 선교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현실적 책임을 감당하려는 진지한 몸짓이었다. 로잔 운동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그 의미와 범주를 꾸준히 심화·확대해 왔다. 따라서 이번 한국대회는 선교와 전도를 여전히 개인 전도와 영혼 구원에 한정하는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 특히, 젠더, 이념, 세대, 다문화, 분단, 전쟁 같은 난제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대회가 대형교회와 주류 신학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선 안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로잔 언약에 큰 감동과 자극을 받고, 그 정신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온 일군의 학자와 학생, 목회자와 평신도, 교회와 선교단체 등이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한다. 주류 신학과 교회의 기득권 세력은 그들의 몸짓과 외침을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물론, 그들만이 로잔 운동의 유일하고 정당한 적자일 수 없다. 하지만 로잔대회에서 이들의 존재와 의견이 부정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번 대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 소중하다. 부디, 이번 대회에 인력과 재정을 후원하는 다양한 규모의 교회들, 한국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꿈꾸는 교우들, 이 운동에 오랫동안 헌신해온 사람들, 그리고 로잔을 사랑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장벽 없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셋째, 이번 대회에서 제2의 빌리 그레함, 르네 파디아, 그리고 존 스토틀의 출현을 기대한다. 로잔의 탄생은 일차적으로 당대의 양극단 사이에서 건강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력과 재정을 지원한 빌리 그레함의 막강한 역량 때문에 가능했다. 동

시에, 로잔대회가 영미권의 보수적인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고, 제3세계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하여 더 포괄적·개방적·진보적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르네 파디아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용감하고 탁월한 인물들 덕택이다. 끝으로, 영미의 보수적인 백인들과 남미와 아프리카 출신의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인내와 지혜, 포용과 설득으로 양자간의 타협과 일치를 이루어 낸 것은 전적으로 존 스토틀의 공헌이다. 이번 대회도 다양한 지역, 인종, 신학, 이념, 성과 젠더, 쟁점들이 충돌하면서 진행 과정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인력도 필요하겠다. 따라서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든든한 후원자들, 대회의 정신과 가치에 선한 영향을 끼칠 탁월한 신학자들, 그리고 대화를 조율하고 풍성한 결실을 이끌어낼 현명한 조정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다양한 재능과 역할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번 한국대회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행사가 분열과 갈등 속에서 길을 잃은 한국 사회, 그리고 본질을 상실하여 위기를 자초한 한국 교회에게 하늘이 내린 은혜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확장되는데, 한국 교회가 의미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이자 교회사 교수, 백행나무교회 담임목사이다. 드류대학교에서 미국교회사로 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추구하고서 일상의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날 학교와 교회를 오가며 땀을 흘리고 있다

로잔의 정신과 단순한 생활양식

김진혁 (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세계복음화국제대회(이하 '로잔대회')가 열렸다. 150개국에서 2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제1차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운동의 국제적 연합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잘 알려져 있듯, 이러한 역사적 모임이 가능했던 것은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 제5항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위치하며 애초에 로잔대회에 시큰둥했던 제3세계,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의 참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총체적 선교 개념은 이후 로잔의 기본 정신으로 여겨졌고, 로잔 언약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1차 로잔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이 로잔 언약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약 400명은 언약에 서명하지 않은 채 로잔을 떠났다. 그 수가 수백 명이나 되는 만큼 그 이유도 다양할 것이다. 로잔 언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로잔대회를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의 아내 루스 그레함(Ruth Graham)도 있었다. 당시 대다수 미국 복음주의자가 사회복음에 대해 경계했던 만큼, 전도와 더불어 정치 참여를 강조한 제5항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루스 그레함이 거부했던 것은 9항 '전도의 긴박성'의 마지막 문장, 즉 "우리 중에 풍요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생활양식'(simple

lifestyle)을 개발해서 구제와 전도에 보다 많이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확신한다"이었다. 로잔 언약 초안을 작성했던 존 스토틀(John Stott)도 1974년 로잔 모임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9항 마지막 문장의 두 단어 '단순한 생활양식'이었다고 회고했다.

단순한 생활양식 vs 더 단순한 생활양식

얼핏 보면 '단순한 생활양식'의 추구가 틀린 말 같지 않은 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루스 그레함은 존 스토틀에게 '단순한 생활양식' 대신 '더 단순한 생활양식'(simpler lifestyl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언약에 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전도를 위해 현재 누리는 풍요로운 생활보다 '더 단순하게' 사는 것은 감내하지만, '단순한 삶' 자체에 헌신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반면 존 스토틀은 '더 단순한 생활양식'이라는 표현이 타협으로 이끌 여지가 크다고 생각했다. 빈곤이나 검소, 관대 등의 단어는 사람, 국가, 문화, 상황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 단순한 생활양식'은 무엇에 비추어 혹은 누구와 비교하여 더 단순한 것인가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다.

존 스토틀에게 '단순한 생활양식'은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에서 중요 요소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이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산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형태로든 불평등은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친교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전도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은 생활에 필요한 것과 사치스러운 것을 구분해야 하고(딤후 6:6-8), 특히 부유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족함을 배우고 '단순한 생활양식'을 개발해야만 한다.

'단순한 생활양식'에 대한 1974년 로잔 언약의 강조는 1989년 제2차 로잔대회에서 작성된 마닐라 선언과 2014년 제3차 로잔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계승되었다. 1980년에 채택된 '로잔위원회 특별활동 보고서: 단순한 생활양식에 대한 복음주의자의 헌신'(Lausanne Occasional Paper: 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에서는, '단순한 생활양식'을 전도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정치, 국제개발, 가난과 부, 공동체 등의 여러 현안과 결부하였다. 더 나아가 오늘날 로잔 언약에 헌신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기후위기나 미니멀리즘, 창조신학 등의 맥락에서 '단순한 생활양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따져보는 중이다.

로잔, 한국교회, 그리고 단순한 생활방식

제4차 로잔 한국대회를 앞두고 이제 반세기 역사에 접어든 로잔의 정체성과 정신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도와 부흥을 강조하다 사회정의를 경시하며 균형감을 잃지는 않을까, 다른 한쪽에서는 총체적 선교라는 명목 아래 정치와 윤리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논쟁이 대회를 앞두고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 '단순한 생활양식'의 실

천 없이는 진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심했으면 한다. 우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해결해야 할 긴박성을 느끼지 못한 채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복음 선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이 누리는 삶의 특권을 내려놓는 자발적 희생 없이 사회정의를 외치는 것은 위선에 빠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고려해서라도,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사회 구조적 악의 해결이나 논쟁을 넘어 신음하는 창조세계까지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친환경적인 '단순한 생활양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로잔대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십억에 달하는 보조금, 한국 교회의 엄청난 모금과 후원, 국제 로잔 본부의 재정 비공개 등 소위 '돈 문제'로 시작 전부터 우려의 눈길을 받았던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복음주의자가 '단순한 생활양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진혁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박사(D. Phil) 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야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에큐메니컬 연구소 초청을 받아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그 후 영국 옥스퍼드 소재 C. S. 루이스 연구소에서 상주 연구원으로, 영국 런던 대학교 헤이스롭 칼리지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했다. 저서로 <질문하는 신학>(복 있는 사람), <순전한 그리스도인>(IVP), <신학의 영토들>(비아) 등이 있다.

‘한국 로잔 신학자 콘퍼런스’ 참석 후기

이재근 (광신대학교 교회사 교수)

지난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포함해 총 11시간 30분에 걸쳐, 서울 서빙고의 온누리교회 청소년수련회에서 로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한국 로잔 신학자 콘퍼런스’가 열렸다. 참석한 이들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에 참석하는 신학자와 선교학자들, 한국의 여러 대학과 신학교에서 로잔 운동을 연구하고 활성화하는 책임을 맡은 로잔교수회 회원들, 한국과 해외에서 선교 관련 활동을 하는 활동가 등, 약 35명이었다. 프로그램의 대략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한국 준비위원회 위원장 유기성 목사와 한국로잔위원회 교수연구회 회장인 구성모 교수, 제4차 로잔대회 공동 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발제와 강연은 모두 네 차례 진행되었는데, 그중 두 개는 오전에 진행되었다. 우선 한국준비위원회 총괄기획부장인 이대행 선교사가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준비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에서 대회를 열기로 결정된 후, 대회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주제가 정해지기까지의 과정,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이 꼼꼼히 소개되었다. 이어서 한국로잔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제4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위원인 한철호 목사가 ‘제4차 로잔대회 프로그

램 및 Q&A’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한철호 목사는 7일간 진행될 세세한 일정을 소개하고, 각 프로그램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점심 식사와 친교 후 오후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를 역임한 포항제일교회 담임 박영호 목사가 ‘사도행전 프로페사이 및 공동설교’에 대해 온라인으로 강연했다. 이어서 한국로잔위원회 총무이자 제4차 로잔대회 신학위원인 서울신학대 최형근 교수가 ‘제4차 로잔대회 신학문서’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형근 교수의 강연 후에 그의 발제를 바탕으로 참석한 신학자들이 질문하고 최형근 교수가 답변하는 ‘Q&A 및 전체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오후 일정을 마친 후 저녁 식사는 초안이 작성된 서울대회 문서들을 개정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온누리교회에 머물고 있던 국제 로잔 신학위원들과 함께 했다. 식사 후에는 이들과 함께 모여 문서들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하는 ‘제4차 로잔대회 신학문서 토론’이 이어진 후, 모임을 마무리했다.

발제를 통해 알게 된 4차 로잔대회의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우선, 대회 공식 명칭이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로 바뀌었다. 원래는 ‘2024 서울 제4차 로

산대회'였다. 그러나 인천 송도컨벤시아가 주 모임 장소이므로, 도시명 '인천'이 추가되었다. 둘째, 대회명이 변화되었듯, 주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원래는 4차 대회 주제가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자'(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였다.

그런데 이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로 바뀌었다. '나타내자'(display)와 '함께'(together)가 추가되었다. 이 두 단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서울대회는 2010년 케이프타운대회의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라는 구호에 담긴 총체적 선교 선언을 계승하려는 것 같다. 셋째, 현재 대회 참석 의사를 밝힌 이들은 222개국 5,000명 정도다. 지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대회에 참석한다. 이들의 직업은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NGO,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환경운동가 등으로 다양하다. 목회자와 신학자, 선교사 등 기독교 사역자 집단이 아닌 이들이 많다는 것은 국제 로잔이 복음과 선교의 총체성이라는 정신에 맞게 참석자를 선별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오후 세션은 12개 지역 및 국가별 모임과 25개 이슈 그룹 토론으로 채워진다. 25개 이슈는 현대 복음주의의 선교가 당면한 주제의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이들 25개 이슈는 7개 대주제, 즉 '복음전파,' '디지털 시대의 사역,' '인간됨에 대한 이해,' '다중심적 선교사역,' '선교와 거룩함,' '공동체에서 증인되기,' '사회적 상호교류'의 하위 주제들이다.

눈에 띄는 것은 4차산업혁명을 맞은 오늘날의 사회변화를 '디지털 시대의 사역'이라는 새로운 대주제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AI와 트랜스휴먼, 성과 젠더 등 과학혁명과 성혁명 이슈도 '인간됨에 대한 이해'라는 범주

로 다룬다. 다섯째, 저녁에는 화요일부터 5일 간 하루씩 세계교회가 당면한 선교적 현실을 회개, 성찰, 기쁨(로잔 50주년 회년), 갱신, 화해라는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목요일에는 대회 호스트인 한국교회가 '갱신'이라는 주제로 저녁 모임을 주관한다.

모임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에 참석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했다. 우선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준비위원회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졌다. 로잔 정신과 딱히 연관이 없어 보이는 몇몇 대형교회가 대회를 이벤트처럼 준비한다는 비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왕이면 로잔 정신을 공유하는 더 많은 중소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협의체를 조직해서 한국 기독교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회로 준비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준비하며 진행한 만큼, 한국준비위원회를 주도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대회를 계기로 로잔 정신에 더 공감하고 변화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화해' 이슈가 대회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부각된 것과는 달리, 남북 분단과 통일, 저출산과 인구소멸 같은 한국의 특수 현실이 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재근

광신대학교 교회사 교수이다. 아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보스턴대학교,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신학과 선교학, 역사학을 공부했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에서 학회장으로 봉사하며, 광고산울교회에 출석한다. 저서로 <세계복음주의 지형도>(복 있는 사람, 2015), <종교개혁과 정치>(SFC, 2016), <20세기, 세계, 기독교>(복 있는 사람, 2015) 등이 있다.

로잔의 질문, 화해를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는 가능한가?

이강일 (한국복음주의운동 연구소 소장)

로잔의 독특성

로잔대회는 전통적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의구심과 재해석이 요구되던 1970년대에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대회였다. 거기서 로잔 언약이 탄생했다. 이 언약은 여전히 복음 전도가 절실한 미전도 종족의 현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과 아울러 사회참여를 선교적 의무로 격상시켰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라는 1차 대회 주제가 보여주듯 당시 WCC와 구별되는 세계전도대회로 기획되었으나, 제 3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총체적 복음과 사회참여 주장을 수용하여, 양극화된 선교 운동 공간에 균형 잡힌 모델을 보여주었다.

유일한 복음에 대한 헌신

로잔의 균형에는 이유가 있다. 이 균형 때문에 기독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급진적 제자도' 그룹을 포함한 로잔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과 '복음을 위한 사회적 행동'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선교할 때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은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된다'(not separate but distinct)라는 입장(로잔 언약 5항)을 취한다. 이것이 근

본주의나 에큐메니컬 선교 운동과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다.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의 기반 위에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믿기에 로잔 특유의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의 선교론이 제시되는 것이다.

로잔의 현실

로잔에서 가장 쟁점이 된 주제는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였다. 그도 그럴 것이 20세기에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보수적 기독교 진영은 경계하고 진보적 기독교 진영은 독점하다시피 한 의제였다. 그러나 빈 부격차, 인종갈등,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서구식 개인 전도 방법과 관점에 근본적 한계가 나타났다. 이때 '급진적 제자도' 그룹 특유의 선교적 도전이 로잔대회에서 수용되었고, 그 결과물인 로잔 언약을 참가자 다수가 승인하였다. 그러나 선교의 주도권은 서구와 아시아 일부 그룹이 가지고 있다 보니 1974년의 로잔 언약이나 1989년의 마닐라 선언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향적 약속을 천명해도 실제 구성원들은 전통적 구두선포 중심의 선교 운동에 더 집중했다. 물론 로잔의 '급진적 제자도' 그룹이 총체적 변혁을 위한 국제연대(Infemite)를 구성하여 꾸준히 활동해 왔지만, 로잔 문서들이 말하는

균형과 참여가 실제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케이프타운의 성과

로잔의 선언과 실천의 간극을 메꿀 대안이 로잔 3차 대회의 결과물인 케이프타운 서약에 포함되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회 주제처럼, 복음 전도 우선성 논쟁을 정리하고, 화해와 평화를 향한 선교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서약문은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하는 근본적 정신임을 밝힌다. 이 정신은 에큐메니컬 선교 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로잔 언약 자체(로잔 언약 1항 하나님의 목적)에서 가져온 것이다. 복음 전도 우선성 논쟁을 의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성을 강조하되 그 복음이 총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복음 전도는 모든 선교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궁극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개인 전도를 항상 우선적 실천과제로 앞세워, 다른 선교사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전도의 위상을 전환한다. 이런 단계를 밟아 케이프타운 서약은 하나님이 이루신 화해와 평화를 이웃과도 실현하기 위한 생활양식 개발과 실천을 촉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화해(reconciliation)를 향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교회에 로잔은 너무 낮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로잔은 한국 교회에 깊이 영향을 끼쳐왔다. 한국 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해외선교사 파송의 계기에 1970년대 로잔의 세계 복음화 운동이 있었다. 로잔의 사회참여 주장은 1990년대 이후 기윤실, 성서한국 등 한국개신교 복음주의 사회선교의 근거가 되었다. 이제 21세기 로잔은 한국의 지역교회에도 묻고 있다. 2010년 로잔 3차 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은 로잔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규정하고 하나님

이 이루신 화해와 평화를 세상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폭력적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파괴나 복수의 행위에 동참하기 보는 차라리 고난이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갈등의 상처를 장기적으로 치유하는 데 참여하며, 교회는 피난처와 치유의 장소가 된다.”(케이프타운 서약 2부).

종래의 선교는 이른바 ‘교회가 주도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였다. 로잔의 도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라는 것이다. 예배, 교육, 봉사에 더하여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에 예배, 교육, 봉사를 재위치시킬 수 있을까?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가들이 말하듯이, ‘선교가 있는 교회’(Church with Mission)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득 담은 로잔이 한국을 찾는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의 선교로의 대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강일

한국복음주의운동 연구소 소장이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IVF(한국기독교학생회) 간사로 섬겼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개신교 복음주의운동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이후 줄곧 선교단체와 교회,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주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모색해왔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이중언어 능력을 구비시키기 위해 글쓰기를 중심에 둔 신학과 인문학의 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화해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고 사역 중이다.

로잔 정신과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 역사와 미래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1974년 로잔에서 개최된 제1회 로잔대회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좁은 의미의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대해 응답하는 총체적 복음임을 합의하고 선언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대회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한국교회에 상당 기간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독재 정권하에서 순응하며 외쳐왔던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 정교분리와 내세 신앙의 토대 위에 접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대를 거치면서 복음주의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침묵할 수 없다는 외침과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가 그리스도인의 두 의무라는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의 총체적 복음이 알려지면서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은 날개를 달게 되었다. 복음주의 신앙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불의와 고통에 응답하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로잔 언약은 든든한 신학적 토대가 되었고,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합의하고 채택한 로잔 언약에 대한 신뢰 때문에 복음주의 사회 선교라는 낯선 움직임에 대해서 경계를 완화하고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991년 <복음과 상황>, 1992년 남북나눔운동 등이 창립되면서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경우 스포츠신문 음란 폭력물 근절 운동에서 이룬 성과들은 시민운동이 언론과 싸워 이긴 성과로 높이 평가받고 있고,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금권선거와 관권선거를 막는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기도 했다. 남북나눔운동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식량난 위기 상황에서 복음주의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교회들이 연대하여 교회들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도록 이끌어 한국 교회의 통일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다. ‘회년함께’는 성경적 토지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토지 공개념을 전파했고 노무현 정부 이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성과는 한국 교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 가능했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총체적 복음의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신의 직업 영역 속에서

총체적 복음을 실현하는 기독 전문인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등이 이 시기에 출범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분화와 왜곡을 겪게 된다. 2004년 서경석 목사가 중심이 된 '기독교사회책임', 2005년 김진홍 목사가 중심이 된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출범하면서 사회선교 운동이 양분화되고 왜곡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반공 이념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가 반미와 공산화로 가고 있다는 과거에 대한 미화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진단을 바탕으로 주류 복음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감을 고취하고 정치적 행동으로 이끌었다. 2010년대 들어서 이들은 반동성애, 반이슬람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들은 동성애와 이슬람 관련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위기감을 고취하고 이를 특정 정파에 대한 정치적인 선택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특정 이념이나 정파와 연결하여 교회를 선동하는 흐름이 교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 조금씩 확산되던 복음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실천의 흐름은 대폭 축소되었다. 그동안 한국 복음주의 주류 교회들은 그동안 목회 세습, 재정 비리, 목회자 성(性) 문제, 공세적 선교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을 받고 선교가 위축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총체적 복음의 회복과 사회 선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특정 이념과 정파에 편중된 왜곡된 사회참여의 흐름에 치중하여 이념과 정파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사회와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약화하

는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제4차 로잔대회 개최국이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했고 주최국으로 세계 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잘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 하지만 로잔 선언부터 시작되어 '마닐라 선언'(Manila Manifesto),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에 나타난 로잔 정신이 총체적 복음을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고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논의, 노력은 변방에서 지극히 작은 목소리로 존재할 뿐이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24 로잔한국대회를 마치면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에 이은 서울대회의 결과물도 나올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 네 차례 대회의 결과물들에 담긴 총체적 복음을 함께 학습하고 이에 비추어 교회를 개혁하며 사회 선교를 실천함으로 교회 갱신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한국에서 제4차 로잔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이다. 공립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기독교사들의 연합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이사장,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길 찾기 과정인 오디세이학교 교사, 주님의보배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있다.

4차 로잔대회가 세계와 한국 교회에 정말 기여하려면

구교형 (성서한국 이사장 /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4차 로잔대회(2024. 9. 22.~24.)에 벌써 많은 관심과 적지 않은 염려도 있다. 그것은 단지 로잔대회와 로잔 운동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넘어 21세기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과제를 애써 고민해 보자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2024년 로잔대회는 왜 다시 소환되었나? 복음의 본질은 변치 않고 항상 영원하지만, 그 복음을 각 시대에 적용하는 우리의 이해는 늘 달라져야 한다. 이는 이방 선교를 놓고 격돌했던 예루살렘 회의(행 15장)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당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할례받고 율법 지키는 충실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대의 모든 경계를 벗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시는 선물로 다시 고백했다.

이처럼 모든 시대의 복음 운동은 항상 새로운 선교 과제와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시대변화에 따른 복음 운동의 변화는 로잔 운동 이전에도 있었다. 산업화와 근대화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은 기독교 선교와 짝을 이루며 무한 성장과 발전, 복음화를 꿈꾸었지만,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한순간에 무너졌다. 서구 교회와 선교계도 전쟁, 빈곤, 독재, 식민지 등 인간이 실재 맞닥뜨린 과제를 무시한 선교라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뒤늦게 깨닫고 세계교회가 선교와 시대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WCC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 넓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개신교보다 훨씬 무거운 철갑을 입고 살아온 가톨릭 세계가 먼저 움직였다. 교황 요한 23세의 제의로 개최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년)를 통해 가톨릭은 개신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가족들과 공산권을 초대했으며, 평신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와 이웃을 향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협력과 공존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그 뒤에도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와 프란치스코(2013년~현재) 교황 등을 통해 가톨릭의 성육신은 더욱 확실하게 자리 잡고, 지극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진통과 반발도 많았다. 특히 WCC 운동은 지나친 인간화로 치우치면서 전통적 교회와 선교를 벗어났다는 우려가 커지며, 196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모습의 국제 복음주의 운동이 모색되었다. 그게 로잔 운동이다. 로잔 운동도 복음은 영원하지만, 시대와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교회와 선교도 시대에 맞는 과제와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자는 뜻이었다.

아슬아슬하고, 미흡한 면도 많았지만, 주류적인 빌리 그레함과 도전적인 남미 제자도 그룹 사이에서 존 스토틀의 탁월한 조정력이 발휘되어 1974년 첫 단추를 잘 끼웠다. 그래서 10년쯤 흐른 1980년대 중반 저 멀리 한국 땅에서도 '난데없이' 로잔의 씨가 맺혔다. 당시 한

국 사회는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시대가 한창이었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게 다스리신다는 고백과 다르게 엄혹한 시대 현실에 무력하던 젊은 교수, 목회자와 청년, 학생에게 뒤늦게 전해진 로잔 소식과 문서들은 하나같이 생수처럼 여겨졌다.

그때 이후 30여 년이 넘도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좋은교사운동, 회년함께 등 다양한 기독교 사회운동과 연합체인 성서한국을 만드는 등 한국형 복음주의 운동의 꽃을 피웠다.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역시 당시 로잔 운동의 맥락에서 시작되어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로잔 50년을 맞아 이제 한국에서 4차 대회를 유치하여, 지금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잔 한국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로잔 운동의 역사적 맥락, 신학적 배경을 좁게 이해하여, 오직 WCC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척점으로서 정체성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필자는 4차 로잔대회가 이제 '복음 전도와 사회선교 중 무엇이 우선이나' 같은 식상한 되풀이보다 무엇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방식이며, 과제인지 더 진지하게 묻는 자리이기 바란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선교는 항상 중요하다. 그러나 '선교'라는 이름만 달면 뭐든지 정당화되어 온 선교적 거품, 세일즈 선교를 이제 극복해야 할 때다. 또, 끊임 없이 이슬람 선교를 시도하면서도 크게 벗어내지 못한 이슬람 혐오주의를 내려놓고, 이미 국내에 체류하는 수많은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를 나그네로 영접하는 환대 선교를 진지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구권을 뛰어넘는 비서구권의 성장과 역량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국제 로잔과 한국 준비위원회는 여전히 미국 등 전통적 서구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한 모습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1953년 휴전 이후 최악이라는 한반도 위기 상황과 국제평화의 과제, 심각한 온 지구의 기후위기, 갈수록 커가는 경제 불평등과 국제 빈곤 문제, 성(性)의 역할과 새로운 관계 설정, 지구적 저출산 상황 속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화 과제 등 산적한 사회적, 선교적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회는 그때로 끝나지만, 하나님 교회의 현실은 두고두고 남는다. 2024년 9월 로잔대회가 다음 세대에 주는 국제 복음주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저 50년을 맞는 기념대회만은 아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로잔대회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제언을 필자가 2022년 9월, 뉴스앤조이에 기고했던 글 일부를 인용하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로잔 한국 대회가 단지 복음주의자로 불리는 특정한 개신교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익숙한 우리들의 언어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함께 들려져야 한다. (...) 지난 6월 '로잔 뉴욕 국제 리더십 회의'(L4NY)에서 유기성 목사가 했던 말처럼 한가하고 태평한 심정으로 큰 행사 하나 잘 치렀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대회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로잔 한국 대회의 참된 성공을 위해 더 깊이 성찰하고 철실히 고민해야 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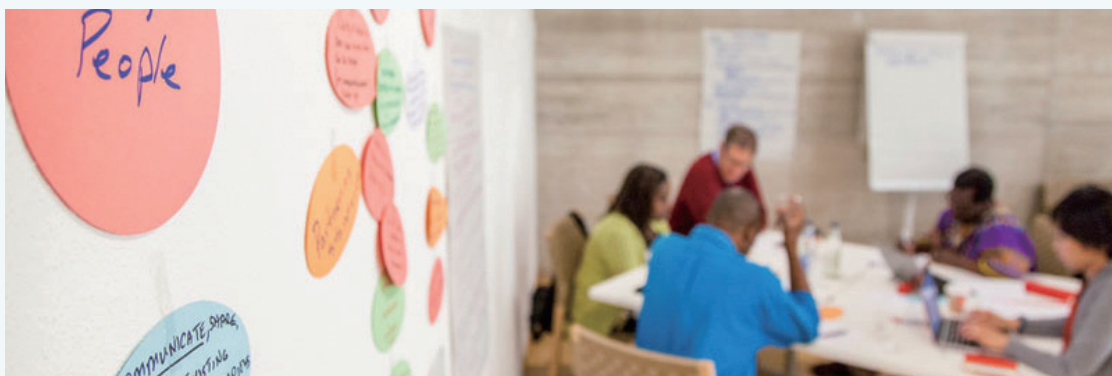


글쓴이 구교형

성서한국 이사장 및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이다.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예장 합동 목사. 청년 시절 로잔 운동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만난 후 지금까지 다양한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 단체와 현장에서 일해왔다. 경실련 간사, 남북나눔운동 간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성서한국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경청과 상호 배움의 공간으로서의 로잔 운동

서동준 (에딘버러대학교 세계기독교학 박사)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적 정체성 하에 다양한 문화, 인종, 세대, 교단의 배경을 지닌 이들이 모여 교류하는 국제적인 플랫폼 혹은 공간이다. 이러한 로잔 운동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로잔대회들의 참가자 구성에서 나타난다. 한 예로, 1974년에 열린 제1차 대회의 경우 총 2,473명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150개의 국가와 135개의 개신교 교단에서 왔고, 이들 중 1,000명 이상은 비서구권 지역 출신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44세 이하였다. 복음주의자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지녔지만,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우리에게 상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배움이 늘 순직한 방식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복음주의’라는 공통분모를 가졌음에도, 각자의 배경, 강조점, 관점의 차이로 인한 긴장 혹은 갈등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은 로잔 운동의 기틀을 놓은 두 인물, 곧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틀트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제1차 로잔대회의 기획자인 빌리 그레함은 이 대회를 통해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기독교적 선교관이 재천명 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그레함의 기대는 로잔대회가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 선교운동들의 전통 위에서 있다”라는 점을 역설한 그의 개회 연설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물론, 그레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상실해가는 여러 기독교계의 움직임들을 지켜보며, 로잔대회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선교적 사안들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강조하는 대회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존 스토틀트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1960-1970년대 스토틀트는 젊은 복음주의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좀 더 총체적인 선교관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스토틀트의 이러한 총체적 선교관은 제1차 로잔대회의 중요한 결실인 로잔 언약에 반영되었다. 로잔 언약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스토틀트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젊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총체적 선교에 대한 목소리를 로잔 언약 속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로잔 언약 제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했고, 로잔 언약의 선교적 총체성에 대한 강조는 전 세계 많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기독교적 사회 실천의 토대가 되었다. 물론, 로잔 언약 제6항이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전도가 최우선”임을 강조했지만, 제5항의 존재는 로잔대회를 좀 더 총체적인 선교를 표방하는 모임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로잔대회를 통해 전통적인 선교관을 확고하게 천명하려 했던 그레함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그레함은 기꺼이 로잔 언약의 첫 서약자가 되었다. 본래 그레함은 각종 성명서나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해왔다. 서명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로잔 언약은 그에게 “유일한 예외”였고, 그레함의 공개적인 지지를 통해 로잔 언약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서가 될 수 있었다. 그레함이 자신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로잔대회를 좀 더 총체적 선교를 표방하는 모임이 되도록 만들었던 로잔 언약의 첫 번째 서약자가 되자 했던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모습은 그 자체로 로잔의 정신을 시사한다. 그레함은 제1차 로잔대회 개최 연설에서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차이를 강조하며,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채 이들의 신앙적 실천과 반응들을 균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경고했다. 그리고 그레함은 로잔대회가 각기 다른 상황, 생각, 입장을 지닌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여 교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히며, 이러한 교류·교제의 정신을 “로잔 정신”으로 규정하였다. 1차 로잔대회에 대한 분명한 기획 의도를 지니고 있던 그레

함이 그러한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았던 로잔 언약에 서약한 것은 어쩌면 그 자체로 그레함이 강조했던 ‘로잔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른다.

로잔 운동은 로잔 언약을 비롯한 로잔의 여러 공식문서에 동의하지만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신앙적·신학적 강조점과 관점을 지닌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복음주의라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닌 다양성은 언제나 긴장과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로잔 운동은 그 운동을 시작한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로잔 정신’ 안에서 이러한 긴장과 갈등 자체를 끌어안는다. 그 정신은 그레함이 강조한(혹은 보여준) 것으로, 복음주의라는 공통의 토대를 지닌 이들이 그 토대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함께 나누고 이를 경청함으로써 서로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이다. 물론, 이러한 경청과 상호 배움의 시간이 항상 ‘완벽하게 일치된 입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잔 운동이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복음주의적 다양성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풍성하게 할 자원으로 가득하다.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둔 우리가 로잔 운동을 ‘경청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상호 배움의 자세’로 대회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원의 놀라운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서동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역서로는 <빌리 그레함: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이 있으며, 2021년에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수여하는 World Christianities Essay Prize를 수상하였다. 분당우리교회 교육전도사와 한국 선교연구원(KRIM) 인턴연구원을 역임했다.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인터뷰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일시 & 장소
2024년 3월 18일(월) 오후 4시, 서울 영동교회

석종준 목사님께서서는 한국교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애써오신 대표적 목회자이십니다. 그동안 섬겨 오셨던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문식 우선 '희년선교회'를 설립해서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운동을 했는데요. 약 30년 하다 보니 지금은 '국제민간교류협회'라는 NGO와 외국인 노동자의료보험조합인 '주빌리 메디컬 펠로우'라는 국제단체로 성장을 했어요. 모두 외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고 성공적으로 노동자들을 돌보게 된 사례입니다. 또 의료 돌봄이 선교 접촉점이 되어서 이제 8개 언어로 매주 예배도 드립니다. 다음은 홍정길 목사님(남서울은혜교회)이 '남북나눔운동' 대표가 되셨을 때 저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의 실무 책임자로 세우셨어요. 약 20년 열심히 하다 보니 대표도 역임했고 지금은 이사도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다음으로 많이 지원하고 WFP(세계 식량기구)하고도 협력하는 건실한 기독교 NGO가 되었

2024년 9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4차 서울-인천 로잔 대회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준비의 수고와 기대가 있는 동시에, '로잔 넘어' 등 여러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보완을 주문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과 삶>(3+4월호)은 '로잔 정신과 한국교회'라는 특집 주제를 통해, 로잔 운동의 핵심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또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 대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회가 더 값지고 풍성한 대회가 되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점검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한국 복음주의 진영의 핵심 리더 중 한 분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이문식 목사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지혜와 혜안을 찾아보자.

습니다. 또 저는 '성서해석학'에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서 직면한 선교 과제를 신학적으로 풀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 <복음과 상황>이라는 정기간행물을 통해서도 사회과학과 성경을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해석학적 시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CBS 성서학당'이라는 곳에서 꽤 많은 양을 녹화했는데, 이를 접한 사람들이 균형 잡힌 내용이 굉장히 신선했다는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석종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로잔대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문식 로잔대회가 1974년에 열렸을 때 <타임>(Time)지는 개신교 역사상 최초 공의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공의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처럼 선교 현장에서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함께 모여서 다루는 자리였지요. 이 전통이 가톨릭에 계속 있었고, 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교파별로 약진을 하다가 1974년 북

음주의 진영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존 스토틀 목사님이 함께 주도한 것이 로잔대회입니다. 이미 WCC(세계교회협의회) 중심의 회의가 있었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이 회의가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포기하고 보편적 가치로 기운 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성경 중심적 입장에서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마련한 것이 로잔대회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에게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만큼 세계 선교에서 성장하고 역할을 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장점을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 중심적 메시지를 좋아해요. 둘째, 2천 년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우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편향성,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본주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한국교회가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사로잡혀 있던 측면도 있습니다.

석종준 4차 로잔대회는 현장 참여자만 약 200개국 5천 명 정도이고, 또 온라인 접속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로잔 정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문식 그동안 로잔대회 문서가 어떻게 이름 지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1974년 1차 로잔대회에서는 ‘언약’(Covenant), 1989년 2차 마닐라 대회에서는 ‘선언’(Manifesto), 2010년 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서약’(Commitment)이었어요. 1, 2차에서 언약 맺고 선언한 것을 3차에서 실천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 대회에서는 연속성 속에서 그 실천을 위한 더 실제적인 안내와 공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대회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

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것은 오히려 이 구체성이 빠지거나 더 모호해진 것이 아닌가 해서 다소 염려가 됩니다. 즉, 로잔 정신의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에 있는 것이라면,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다수 제3세계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문제들에 기초해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들어오고 제시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맥락이 끊어진 느낌이 있어요. 물론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의 양 날개 같은 균형의 강조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가령 영혼 구원이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병에 걸려서 당장 수술할 사람은 먼저 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로잔의 균형 잡힌 기독교,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2차 마닐라 대회의 장점은 오순절 운동을 수용해 낸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강조한 선교의 세 가지 측면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롬 15:18-19).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수용 근거가 되었어요. 따라서 총체적 선교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주의, ‘행함’으로 구체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NGO까지 포괄하는 복음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한 표적과 기사까지 수용하는 복음주의인데, 2차 마닐라 대회 때 이것까지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한 창의적인 발전이었습니다. 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신학 전통을 계승했는데 왜 실천하지 못하고, 왜 선교운동이 더 안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의 불순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순종을 극복하고 ‘서약’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계명에 총체적으로 순종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로잔 정신의 핵심은 총체적 선교이기에, 저

는 이번 4차 로잔대회에도 이 정신이 계승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소 염려가 되는 것은 이번 4차 로잔대회는 주제도 그렇고 로잔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시한 질문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반응을 볼 때, 총체적 선교보다는 순전한 복음 선교, 즉 근본주의적 선교로 이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석종준 우리가 건강한 총체적 선교라는 화두로 상징되는 로잔 정신을 제대로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4차 로잔대회가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지요?

이문식 저는 4차 로잔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아진 한국교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로잔대회 준비위원회를 통해 국제 로잔위원회와 잘 소통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준비위원회가 대단히 많이 수고하시고 계신데요. 염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되다 보면 사회 변혁에 관한 측면이 희석되거나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1974년 1차 로잔대회 때 참석했던 한국 대표들이 귀국할 때 로잔에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했었잖아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때였는데, 이후로 각성해서 로잔 정신에 기초해서, 또는 로잔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해 온 IMF나 SFC 소속의 젊은이들, 또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선교한국' 등의 선교운동 지도자들이 그동안의 사역과 열매와 고뇌들을 국제 로잔위원회에 전달해서 세계가 함께 한국의 현장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로도 역할을 잘 감당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로잔대회가 기구적 선교운동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 특별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로잔 준비위원회의 많은 수고와 노력에

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구 확장을 위한 선교운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약 5천 불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먹고 자는 비용을 내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받은 그 5천 불은 어디에 쓰는지 질문했는데요. 국제 로잔위원회를 위한 기금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칫 기구적 선교운동의 한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WCC(세계교회협의회)는 그러다 망했거든요. 선교운동이 점점 그 기구와 직제, 위원회를 더 만들어서 선교 기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현장성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국제 로잔위원회도 조직이 커질수록 현장 접촉점이 약해지고 기구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 또 그 직원들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쓰는 비행기 출장 경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러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로잔 선교대회 자원을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면 앞뒤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저는 로잔대회의 총체적 선교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사고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부디 4차 로잔대회가 WCC처럼 기구적 선교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석종준 목사님께서 4차 로잔대회 준비위원회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문식 저는 1차, 2차, 3차 로잔대회까지는 국제 로잔위원회가 대회 개최국과 교회 현장의 상황에서 나오는 논제들을 신학화 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번 4차 로잔대회에서도 한국 상황에서 나오는 논제가 반영된 신학화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유럽, 중동, 대만, 한반도 할 것 없이 모두 '평화'가 중요한데요. 즉, 복음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살림' 신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

서 저는 이번 로잔대회에서는 ‘살롬’을 본격적으로 논제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핵심 논제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주의자들이 다 함께 ‘살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을 엮어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정작 ‘살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대만과 한국은 전쟁이 당장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긴급한 상황이기에 로잔대회가 예언자적으로라도 ‘살롬’에 관한 신학적 논제 정도는 다루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석종준 목사님께서 최근 ‘로잔 너머’ 발제에서 로잔 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교회가 로잔 정신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와 관련한 두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신학적 폐쇄 및 고립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제안은 신학의 자주화를 이제 실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문식 첫 번째는 신학의 재정립 문제인데요, 즉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어도 개혁주의까지 가야 하겠다”라는 것, 또 ‘총체적 선교 신학’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한 번 검토해서 신학적으로도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구 상황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학적 이유로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역사적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공의회부터 선교 현장에서 이슈를 가지고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반도도 선교 현장의 하나인데요,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신학적, 선교적 주제를 속히 신학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세계가 공유하도록 해야 하지요. 왜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겪은 한국교회의 경험과 아픔과 선교적 노력 인식을 당당히 신학적 논제로 내놓지 못할까요?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대리점’ 신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역량은 많이 커졌는데 신학의 자주화

는 아직도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연결되는 어떤 결과나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차 로잔대회를 한국교회가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교회의 굉장한 성장과 영향력의 아주 좋은 결과로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장소 제공과 많은 재정을 들여 환대만 해주고 우리의 신학과 선교적 과제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아쉽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종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서는 특별히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로 귀한 나침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문식 21세기는 봄의 시대예요. 인터넷이나 모든 컴퓨터에서 인식론이 시각 인식론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보고 믿는 시대, 감성 인식론이 발달해서 복음의 시각화가 굉장히 일어난 시대거든요. 저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화, 인터넷, 유튜브 등의 예술 양식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현장을 드러내는 것을 좋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신앙 공동체와 성경이 모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면서 이 감성 인식론 시대를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감성적 인식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지요. 다만 그러려면 더 중요한 공동체의 기초가 있어야 하고 그 기준과 잣대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유튜브와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영상화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지금도 잘 전파될 수 있다고 봅니다. **FAITH & LIFE**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의 만남, 그리고 감사

김반석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과 박사과정)



내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만나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의 계기가 있다.

첫 번째 계기는 신국원 교수님의 책, <니고데모의 안경>을 통해서였다. 인류학에 진학하여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기초를 배우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자라며 배워 온 것들과 대학 수업에서 배우는 (교회에서 흔히 '인본주의'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문사회과학을 배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니, 기독교 신앙과 인문사회과학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선배로부터 <니고데모의 안경>을 선물 받아 읽게 되었고, 그동안의 혼란과 방황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책의 서두에 등장하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고,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설명을 읽으며,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마음껏 관찰하고, 음미하며,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질서를 부여해 가는 학자

의 여정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신앙과 학문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독교 지성의 길을 걸어 오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새롭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전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진보적 학문과 이론이라는 신앙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했지만,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안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오히려 자유롭게 다양한 안경을 끼고 벗어 보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갈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안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대를 진단하는 사회과학도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두 번째 계기는 석종준 목사님과 만남이었다.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신앙과 학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

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석종준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다. 당시 한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이론을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철학을 전공하신 석 목사님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푸코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난다. 그렇게 목사님과 대화에서 흥미를 느끼던 중에, 마침 목사님이 내 절친한 동료 이경건 박사(현재 조지아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를 비롯한 다른 대학원생과 기독교 세계관 책 모임을 한다는 것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모인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 지성에 대한 다양한 책을 읽고, 책 내용과 각자의 연구 분야에 비추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학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공부하며 살아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 계기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신앙과 삶〉 편집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다. 2019년 여름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에 유학을 온 이후로, 한국에서처럼 신앙과 학문에 대한 고민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동지들과 떨어진 것이 늘 아쉬웠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의 창궐로 인해 고립된 시간이 길어지고, 그 와중에 외국에서의 새로운 학위과정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에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지성으로서의 비전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러던 중에 석종준 목사님으로부터 〈신앙과 삶〉 편집위원 제의를 받고,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편집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인 지성의 비전을 처음으로 심어 주신 신국원 교수님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 학자로서 오랜 기간을 헌신해 온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신앙과 삶〉 기획을 위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그동안 유학 생활 가운데 희미해져 있었던 신앙과 학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할 수 있었고, 다시금 비전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다. 여전히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경청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편집위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린다.

지난 십수 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각자의 학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동시에 후배 세대의 기독교 지성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힘써 오신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감히 헤아려볼 수 있었다. 그동안의 동역회의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나역시도 그분들을 따라 신앙과 학문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석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지방 이주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지방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높은뜻오차노미즈교회에서 유치부와 통역부를 섬기고 있다. 2022년부터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년, 부활을 믿다

남명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 철학과 졸업생)



나는 고리타분한 교리 중심의 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십수 년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게 약간 고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 서적을 고를 때도 독창적인 성경 해석, 번뜩이는 통찰력, 현실적 문제에 대한 긴밀한 응답이 담긴 책을 우선적으로 찾아 읽는다. 그러나 내가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한다.

신앙은 한 사람의 존재 방식에서 가장 진솔하게 표현된다. 그 사람이 신(神)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더 잘 보여준다. 가령, 교회를 다닌다면 사영리(四靈理)의 제1원리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명제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명제를 자신의 진리 명제로 받아들여 몸에 체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명제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이방인의 염려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인정과 안정을 기

치로 남들 가는 대로 맹목적으로 끌려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벗어나 생계 이상의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복음서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던가?

교리를 자신의 진리 명제로 온전히 받아들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내게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며, 이따금 교리를 깨닫게 될 때 소스라치게 전율한다. 부끄럽지만 내가 부활을 믿게 된 지는 오래지 않았다. 나는 어떤 까닭에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위대한 진리인지 알지 못했다. 역사적 사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천 년 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신앙하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을 모르는데 부활을 어찌 알겠는가?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로 섬기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배웠다. 하나님은

졸업을 앞둔 내게 갑자기 나타나셨고, 나를 매혹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셨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강한 권능에 대해 들려주셨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나를 설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갔다. 나는 졸업을 일 년 미룬 채 대표를 하게 되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애써 모은 재정과 학문에 정진할 시간을 하나님께 전부 바친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은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앎이라.”라는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셨다.

나는 대표로서 무엇을 하기보다 매일 밤 학생회관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루고자 한다면 만족이나 기쁨이 없이 ‘결단-헌신-우울’을 반복할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이른바 신비한 지식을 맛보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절망할수록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강해졌다. 나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워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히 여기서소서.” 나는 내 자아가 죽는 법을 익히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고 비로소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은 부활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자랑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뵈을 날을 그리며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부활. 여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위대한 진리가 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간이 아닌 영원의 관점에서 삶을 조망하고 조탁해야 한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 것이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믿는 부활 신앙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남명현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철학을 공부했다(B.A.). 재학 시절 서기연(서울대기독교연합) 대표로 섬겼다. 날카로운 변증과 섬세한 간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꾼다.

기도없는 삶을 지나며

이현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나는 대학원생 시절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를 통해서 회전익 항공기의 설계 및 해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현재 회사에서도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업무를 배우고 있다. 항공기 설계에 필요한 보조 업무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익히고, 실무에 필요한 기반 작업을 수행한다. 이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신중함을 요구하는데, 스스로 꼼꼼한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서는 적응이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업무 중에 연속 실수를 하면서 주변 팀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팀장님께 보고 후, 어쩔 줄을 몰라서 저녁 시간 내내 여러 관계자를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뒷수습을 한 일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책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들었다.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는 듯했다. 사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과 동시에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했다. 대학원 재학시절에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취업 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을 속으로 자랑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잇따른 업무 실수

는 지금 회사 업무들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던 고만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내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어떠한 전문성의 영역에서도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 그 일은 동료들의 협조로 다음 날 잘 처리되었고, 내 마음은 곧 평안을 찾았다.

요즘은 회사가 많이 바빠졌다. 나는 현재 제안서 작업팀에 합류해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제안서 일부분을 쓰고 있다. 신입사원인 내가 맡은 분량은 적지만, 회사는 이 제안서 작업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많은 직원이 주말에도 출근해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개발 사이클상으로도 소속 부서는 현재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모두 함께 야근하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날도 많은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인정받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다. 때로는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사무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을 하거나, 회의 전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밤새도록 회사에 머물다가 늦게 집에 돌아간 적도 있다.

이러한 시간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금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어떻게든 인정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직장에서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같다. '커리어'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던 것이다.

원고 청탁을 받고 최근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다시 읽은 적이 있다. 저자 고든 맥도날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기도가 일종의 행동 부재로 보이는데, 즉 어릴 때부터 우리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배워오면서, 영적인 성격을 떠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라고 느끼게 된다. 둘째, 기도는 본질상 인간의 나약함을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종종 기도를 실제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아서, 유효한 방편으로 보지 않고 직접 나서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였다. 즉 나는 일을 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내서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했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실지 모르기에, 지금 당장은 내가 나서야만 하는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익숙한 일이라며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으로 오는 것 대신 내가 하늘 보좌로 직접 올라가는 편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구원만 책임져 주세요. 제 삶은 제가 책임질게요"라는 식이었다.

사실 나는 대학원 시절에도 같은 문제로 씨름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에 직면하

면 어떻게든 엉덩이로 승부를 보려 하고 경험에 의지해 일을 해내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야 겨우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했다. 그렇게 크고 작은 벼랑들을 경험하고 대학원을 졸업했고, "여기만큼 혹독한 곳은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벼랑 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벼랑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셨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5)

시편 기자는 두려움에 휩싸인 자신의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했듯이 나 또한 그 동행의 여정 속에 있음을 다시금 믿고 고백하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이것이 진정 내게 매일 선포되어야 할, 내가 선포해야 할 복음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현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이다. 경상대 항공우주공학과 학부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23년 10월에 대한항공에 입사하였고, 항공기를 보며 이 땅에서의 시선이 다시 하늘로 향하길 원한다는 비전으로 항공엔지니어를 꿈꾼다. 대학원 시절 서울대 기독교 대학원생 북클럽에서 활동했다.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시광교회 청년이다.

나의 일용할 원동력

김재완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인류학 박사과정)



영국 유학길에 오른 게 벌써 작년의 일이다. 삼십 대 초반에 처음 하는 해외생활인 데다가 불과 세 달 전 결혼을 한 새신랑이 유학을 떠난다니.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았지만, 걱정도 많았다. 특히나 어려운 시절에 유학 생활을 하며 서럽고도 뜨거운 맛을 단단히 보셨던 선생님들은 내 앞에 펼쳐진 고생길을 훤히 내다보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렇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인류학 박사과정의 1년 차도 어느덧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나는 학부에서 신학을 석사과정에서는 인류학을 전공했다. 학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석사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해 배웠다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 둘을 합쳐 ‘기독교의 인류학’(Anthropology of Christianity)이라는 ‘종교인류학’의 한 분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비서구 기독교의 부흥 및 후기 식민주의를 배경으로 20세기 말부터 서구 인류학계는 기독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기독교의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졌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회인류학과는 종교 및 기독교 연구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인류학과일 뿐만 아니

라 신학부 및 종교학 연구자들과의 학제간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나의 연구 주제는 ‘한국 복음주의 선교’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선교사의 군상뿐만 아니라 선교 그 자체에 대한 담론 역시 급변 및 다변하고 있다. 주요 선교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은 세계 선교의 변화를 어떻게 매개하고 있으며, 세계 기독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입지(positionality)를 인류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나의 연구 주제이다.

1년 차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내가 이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 속 학문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 “평생 해외 생활 한번 안 해본 토종 한국인이자 신학까지 전공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찌다가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인류학을 공부하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비서구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안에서 갖는 의미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

는 인류학자는 여태 거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변화를 어떻게 매개하며, 어떤 입지를 차지하는지 밝히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

둘째, 이전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변화된 것들을 재검토하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사회과학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세속적 아카데미아에서 늘 주변인이었던) 무슬림 및 그리스도인 인류학자들이 학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의 방법론적 가능성으로 검토하면서 연구자의 신앙을 금기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정 종교에 근거한 관점 역시 세속적 관점만큼이나 나름의 고유한 질문과 기여를 통해 인류학적 인간 지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위기 덕분에, 나는 이곳에 올 수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얽고 피상적인 대답이라면, 나만이 답할 수 있는, 더 깊고 본질적인 하나의 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섬세한 섭리'다. 현재 시점에서 돌아볼 때, 한국 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류학을 공부하기까지 십여 년에 걸친 내 지적 여정 안에 얼마나 많은 우연들과 절묘한 타이밍들이 겹겹이 쌓여있었던가. 신학대학원 학생이던 20대 중반,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발적이었다. 신학대학원 중퇴 후 인류학 석사과정에 들어간 첫 학기에 때마침, 내 인생 수업이라고 할 만한 강의를 접한 것은 또 어떤가.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을 만난 과정과 논문 주제를 정한 계기 역시 원래 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후 석사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기까지의 과정,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중에 의도치 않게 경험한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극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기까지의 피 말리는 과정들. 예상과 의도대로 되는 게 거의 없었던 내 20대의 모든 순간은 그 무엇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밑거름들이었다.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섬세한 손길이 아

니고서는 나의 지적 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일까. 나는 불현듯 섭리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리고는 내 공부 및 삶의 의미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상상해 본다. 내 부르심에 대한 상상 속에 정작 내 자리는 거의 없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중심을 차지하기에. 이 상상의 끝에 나는 C.S.루이스가 어디선가 말했다 "작은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끼며 경탄한다.

석사과정 1년 차였던 2019년, <신앙과 삶> 창간호에 실었던 글에서 나는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내 대학원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누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박사과정 1년 차인 지금, 나는 여전히 섭리와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 생각한다. 물론 유학 생활의 뜨겁고도 서러운 맛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문화와 언어의 한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열패감과 우울감, 이방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긴장감과 외로움. 이런 감정들은 아마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유해한 감정들보다 '섬세한 섭리'가 더 선명한 실재임을 믿는다. 이런 생각이 오늘도 나의 일용할 원동력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재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인류학 박사과정에 있다.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한 저서,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주의의 이면과 이중적 목회자 현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이레서원)가 있다.

‘예수 혁명’의 감동적인 역사를 목격하다

-존 어윈 감독의 <지저스 레볼루션>(2023)-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마약은 퀘스트(질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어떻게 이걸 못 보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한 세대가 있어요.”¹

히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아메리칸 언더독>(2021)과 <아이 캔 온리 이매진>(2018) 등 기독교 영화를 잘 만들기로 소문난 존 어윈(Jon Erwin) 감독의 영화 <지저스 레볼루션>(Jesus Revolution, 2023)은 1970년대 초 미국 젊은이들의 영적 부흥을 묘사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 시대에도 가능함을 일깨워 주는 멋진 작품이다. 기성 교회가 외면한 히피들과 젊은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갈보리 교회(Calvary Chapel)를 담임하고 있던 척 스미스(켈시 그래머) 목사는 히피들에 대한 혐오 대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한다. 담임하던 교회의 기성 교인들은 긴 머리와 맨발 차림에 낯새나는 히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척 스미스 목사는 히피 출신으로 전도에 열정



적인 로니 프리스비(조나단 로미)를 만나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식사

를 제공하는 등의 간단한 친절을 베푼 일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한 명 두 명 히피들이 모여들더니 어느새 갈보리 교회는 히피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이 영화의 백미는 밀려드는 히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척 스미스 목사가 히피들이 머무는 해변으로 나아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며 세례를 주는 장면이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마약에 심취했던 히피들이 거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 숫자만 무려 4,5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반문화주의자이며 미국 사회의 골칫거리였던 히피들이 거둬나는 이 장면은 경이로웠고, 시사주간 타임지는 이를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이라 타이틀을 붙였다.

교회가 MZ세대를 수용하기 원한다면

1960년대 히피 세대와 요즘의 ‘MZ세대’²와의 공통점

1. 히피 차림의 로미 프리스비가 갈보리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에게 마약을 하는 히피들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영화 장면 중에서.

2. MZ 세대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부터 1996년까지 기간에 출생한 M(Millennials) 세대와 1997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기간에 출생한 Z(Zoomer) 세대를 통칭한다.

이 있다면 2가지다. 첫 번째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소유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다. 세대 간의 차이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이지만, 세계의 종교학자들에게 종교의 박람회장이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던 한국의 종교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일은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

200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의 비율은 47%로 당시 우리나라에는 종교를 가진 인구가 무종교인보다 많았다. 그러나 2021년 통계에는 무종교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60%에 이룸으로써 한국은 통계상 세속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갤럽은 무종교인 비율이 증가한 결정적 원인을 청년들의 종교인구가 감소한 데서 찾아냈다. 2004년 조사를 할 당시 20대 종교인구는 45%였는데, 2014년에는 31%, 2021년에는 22%로 조사되었다. 15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면 정말 한국의 MZ세대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교회와 절, 성당과 같은 제도 종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그렇다고 영적이 데까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점집도 번성하고 명상센터들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귀신과 지옥, 정령 등을 묘사하는 판타지 영화나 컴퓨터 게임도 인기가 높다. 거기다 중요한 점은 N포세대라 불릴 만큼 결혼이나 출산, 집 장만 등 그들의 부모세대가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삶의 가치들을 잃어버린 채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이 젊은 영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이다. 마치 1960년대 히피들처럼 말이다.

〈지저스 레볼루션〉이 현대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평판이나 주관적 시각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영화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맨발로 다니고 마약이나 하는 히피들을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사람들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중요하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신앙에 바탕을 둔 사랑의 손길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깨닫도록 영화는 우리를 돕고 있다.

‘예수 혁명’을 기다리며

〈지저스 레볼루션〉은 단연코 2023년을 빛낸 최고의 기독교 영화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지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봄 부활절을 앞두고 개봉한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만 5천만 달러(약 653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제작비 1천 5백만 달러(약 195억 원)를 훨씬 넘는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블루레이와 DVD 판매량에 있어서는 〈아바타2〉를 제쳤을 정도라 하니 이 작품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은 대단했다. 기독교 영화 〈지저스 레볼루션〉의 흥행 성공 소식은 곧바로 한국에도 전해졌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영화제인 2023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개막작으로도 선택이 되었다. 한국의 기독교 영화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이 영화를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히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흥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바로 넷플릭스로 넘어가고 말았다. 미국 내 넷플릭스에서는 공개 후 이틀 만에 4위권에 오를 만큼 영화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지금 여러 기독교 배급사와 관계자들이 극장상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조만간 ‘예수 혁명’의 감동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문화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문화 청지기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일전에 교회를 단골로 그리는 작가의 전람회장을 찾아가 간 적이 있었다. 작가에게 교회 야경을 그리는 배경에 대해 물어보았다. 작가의 대답은 간결했다. “교회 십자가가 도시 경관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맞는 소리이긴 했지만 예상을 빗나간 답변에 필자는 순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74%에 달했다. 특히 여론조사 문항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한국 교회가 ‘교회 밖 비관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항목이었다. 이 질문에는 무려 80%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는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임스 헌터(James Hunter)가 말하였듯이 숫자가 늘 영향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법이다. 그에 따르면 한 나라 인구의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화적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형성하는 영역에서 일하지 않을 때나 무관심할 때 그렇다.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추락한 것은 넓혀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활동영역이 협소하거나 문화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방증이리라.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세계에 자족하는 것처럼 인식된다면 세상에 대한 역할은 뒤떨어지게 된다.

문화 참여에 대해 말할 때 문화를 대하는 경직성부터 언급하는 것이 차례일 것이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신앙과 대척점으로 놓기 때문에 문화에 개입하기보다 기피하거나 심지어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고도 문제이다. 종종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창작할 때 사전에 답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 안이한 내용 전개와 판에 박은 듯한 결말로 그치는 것을 확인하곤 한다. 예술품을 전도지 용으로 여기거나 성경책이나 교회와 같은 이미지만을 기독교 예술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 우리의 예술적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롭게 할 방안은 무엇일까. 근래 공기관이나 사회기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예술을 통한 나눔에 힘써오고 있는 ‘아트빈 캠페인 예술연구소’의 신혜영, 신혜선 작가는 관객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참여자들은 그들만의 사연이 담긴 블록 판화를 에코백, 보자기, 포장지, 엽서에 찍고 본인의 작업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회를 거듭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인터섹트 아트센터’(Intersect Art center)의 경우 목사 남편 밥(Bob)이 목회하는 동안 미술을 전공한 아내 사라 번하드는 교회의 허름한 부속 건물에서 아이들에게 유리 조각 모자이크를 가르쳤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나중에는 청소년 멘토링, 무료예술교육, 기술훈련, 금속가공 등으로 다각화하며 지역의 훌륭한 아트센터로 자리잡았다. 지역주민 뿐 아니라 지역 예술협회, 지역 단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이들을 후원해주었다. 사라와 밥 부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라는 하나님 주신 의무를 성실히 지키면서 그들 걸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인터섹트 아트센터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그들의 그림 앞에서 포즈를 위한 모습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좋은 예가 된다. 사회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가 바로 공공적 역할이다. 일부 교회가 주관하는 강좌, 도서관, 카페, 갤러리 운영, 복지 프로그램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마을 돌봄은 공동체가 무너진 지역주민들을 연결해주고 신뢰감을 재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 정재영 교수

가 제안한, 이웃들의 삶에 필요를 채우는 ‘마을 만들기’(Community Building)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의 측면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중요한 일이다. 신앙인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의 이웃들과 접촉하고 긴요한 것을 보급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란 점에서 마땅한 것이며 신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어느 때보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에는 제4차 로잔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개인적으로는 로잔 서울대회를 계기로 복음화 운동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적 실천에서도 큰 걸음을 내딛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여기에 예술을 통한 나눔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들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이 지역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될 친근한 ‘벗’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테니까.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한국의 모든 교회 리더들이 필수로 읽어야 하는 책

서나영 (총신대학교 및 미국 미드웨스턴신학교 객원 교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개정 6판)/ 제임스 사이어 / 김현수 역/ IVP / 2024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의 저서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가 아닌 멀망케 하는 시대정신에 함몰되어 사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열정으로 채워져 있다. 그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헌신으로 이 최고의 기독교 세계관 저서를 지난 40여 년간 변화하는 세상의 사상들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해왔으며, 마침내 이 개정 6판에서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의 길로 안내해 주고 있다.

저자 사이어는 이 개정판을 통해 현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상들, 즉 유신론,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 범신론, 뉴에이지, 마르크스주의, 세속적 인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이슬람의 유신론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줌으로써, 자신과 이웃의 세계관에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의 최첨단 도구'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저자의 세계관 분석은 다각도의 시각으로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사상적 혼란의 복잡함에 대비한 비밀지도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저자는 5장에서 특별히 허무주의가 추구하는 결론의 모순에 대해 예술의 형식을 빗대어 변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무를 표현한 수많은 예술 작품에서 발견되는 형식은 허무가 아니라 미를 표현하는 틀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138면).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질서와 정돈의 틀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의 비유에 따르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은 그 자체가 현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의 아름다운 형식이며 틀임이 분명해진다. 저자의 세계관 연구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익은 다양하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나누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뇌과학에 함몰된 심리학에 크게 지배받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는 오늘날, 그리고 갖가지 사상들이 뒤섞여 예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힘들어진 오늘날, 나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그 보좌에 인간들이 대신 앉아 삶의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묘사한다. 진정으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능력으로 쫓겨 버리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좁은 길은 어떻게 가야 하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안과 밖의 모습을 꿈꾸게 한다.

둘째로 저자의 사상분석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행동 강령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필요한 태도나 자세가 무엇인지를 찾고 순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다.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다름'의 문제를 다루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무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리더의 언어들 속에 묻어있는 동양일원론 사상, 평생을 설교강단에서 설교했던 한 성직자의 설교와 언어 속에 드러나는 뉴에이지 사상, 우울증약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어느 청년에게 뿌리 깊게 박힌 허무주의 사상, 그리고 각자 오염되어 있기에 무심코 표현되는 다양한 현대사상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예외 없이 직면하고 있는 사상전쟁의 실체를 보게 해준다.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 있다. 다름을 보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준비에 해당한다. 각자 자기 안의 죄와 마주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위한 전제이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보편적 시대사상과 생각의 틀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익히는 것은 최고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

우게 한다. 즉 신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무례한 축소와 왜곡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평생에 걸친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게 한다.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저자가 언급한 수많은 학자의 저서들과 문학 철학 작품들의 리스트를 만들며 앞으로 누리게 될 보석과도 같은 독서 여정에 가슴이 뛰었다. 동시에 그가 인용한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과 인생을 아우르는 경험들 속에서 인간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도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추구하는 수많은 단기 프로그램들은 효율성과 편리 위주의 성취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저자가 개정한 이 책 6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당부는 "혼자서 조용히, 또는 가족이나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애써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 좋은 책은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이 책이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로 불린 이유는, 읽고 또 읽고, 결국 암기까지 하면 좋을 내용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은 한국의 모든 교회 리더들이 필수로 읽어야 하는 책이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공부하고 나누고 적용해가며 누리보기를 소망해본다. Soli Deo gloria!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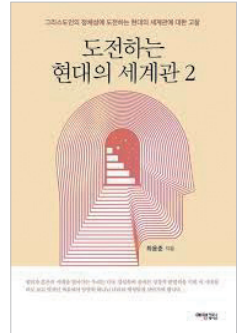


✍ 글쓴이 서나영

현재 총신대학교 및 미국 미드웨스턴신학교 객원 교수이며, 미국 스펠먼 칼리지 초빙교수이다.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독교 예술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소장 학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의 교과서

서병선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2) / 최용준 / 예영커뮤니케이션 / 2024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정보와 사상의 홍수 가운데 지적, 영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면서 살고 있다. 현대를 지배하는 다양한 세계관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통이나 종교의 영향으로 형성되며, 세계관은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2)의 저자 최용준 교수는 한동대에 재직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광범위한 저술 활동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예영, 2000)의 후속 저서로서 1권에서 다룬 세계관(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 이슬람, 유교, 신천지 및 하나님의 교회) 외에 다루지 못했던 여러 세계관을 추가로 소개하며, 이 세계관들의 장단점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교하여 독자들이 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고하며 살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한말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사회개혁과 계몽,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인 것을 본 저서

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총 9장에 걸쳐서 다양한 세계관을 소개하며 이들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유래를 다루며 각 세계관의 장단점을 밝히고, 이들 세계관의 단점에 대해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며 극복할 수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세계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1장의 샤머니즘 세계관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세계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삶을 유지해 온 토착민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세계관이다. 샤머니즘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형태가 다르지만, 자연을 신격화하는 무속신앙의 형태로 한민족의 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기독교가 한반도에 전래되면서 자연 세계의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으며 샤머니즘에서 강조되는 마술과 주술이 금지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소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의 사머니즘 전통이 한국교회에서 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2장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이후 영국에서 발달한 사회윤리적 세계관으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선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이 사상은 근대 시민 사회의 윤리적 기준이 되었으며 자본주의 질서 구축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윤리 및 선악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논리를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제3장의 실용주의는 19세기 말경에 미국에서 시작된 서부개척 시대에 프런티어 정신을 배경으로 한다. 찰스 퍼스, 윌리엄 제임스 및 존 듀이 등이 대표적 사상가이며, 특히 듀이는 행동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모든 가치를 유용성 입장에서 파악하여 인간의 사고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본 도구주의로 발전시켰다. 이 사상은 인간 본성의 더 깊은 영적 측면을 무시하여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으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간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의 실증주의는 인간의 감각 경험과 실증적 검증에 기반을 둔 것만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과학철학 사상이다. 이는 자연과학의 방법이 철학과 사회과학 같은 탐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과학주의와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과학 및 인식론적 입장은 18세기 후반에 과학혁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야기된 결과이기도 하다. 생시몽, 라플라스 및 콩트와 같은 사상가들은 과학적인 이론과 관찰이 형이상학을 대체해야 한다고 믿었다. 콩트의 실증주의는 이미 성경적 세계관과 신관을 배제하였으나,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과 사회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존중한다.

제5장의 인본주의는 1933년 발표된 제1차 인본주의 선언언에서 존 듀이를 비롯한 34명의 서명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들은 인본주의를 초자연적인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환상이 깨지자 1973년 폴 커츠(Paul Kurtz) 등은 제2차 인본주의 선언을 발표하였고, 2003년에는 제3차 인본주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인본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이거나 신성한 믿음을 거부하고 이성과 과학에 대한 세계 이해에 기반을 둔다. 이 인본주의는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으로 인간의 약점과 죄성을 간과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죄성과 구속의 필요함을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제6장에서 9장까지는 사이언톨로지, 사회진화론, 북한의 주체사상 및 도가사상의 장단점을 다루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지닌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따라서 이 책은 특별히 이 다양한 세계관을 어떻게 전세계적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서병선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이다. 서울대학교 학부,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에서 세포생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기도 하였다. 포항총신교회 안수집사이다.

삶이 예배가 되는 서울대학교교회


박동열 (서울대학교교회 상임운영위원)



서울대학교교회는 2003년 3월에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만 명이 조금 못 되는 학생들과 수천의 교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서울대학교는 어느덧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에 무지하고, 영적인 삶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미전도종족'이 되어 버렸다. 서울대학교는 외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계적 대학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 '금전적 보상' 같은 물질적 혜택을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으로 여기는 학생들은 내적으로 학점 경쟁과 '스펙' 쌓기,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

다. 진실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기숙사와 대학 주변의 자취공간에 사는 이들의 삶의 공간에 찾아와서, 구원의 복음과 부활의 도를 알려주어야 하고, 주인이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여 예수의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음을 전해야만 한다.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인 곳이 서울대학교교회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교회는 동일한 비전에 헌신하는 기독교학생회, 기독교수협의회, 선교단체연합회, 기독교동문들과 연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교회는 오전에 학부 학생들과 국제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의 순차 통역을 동반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대학원생들이 예배를 드린다. 특히 서울대학교교회는 '복음 전파'와 '깊은 돌봄'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있기에, '친구초청 예배', '신입생 환영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복음 전파를 실천하고 있고, 지체 간의 '깊은 돌봄'을 위해 목장모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만남을 기획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와 '깊은 돌봄'은 다른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QT'를 통해 구현되는 것을 알기에, 서울대학교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 형태의 기도회와 'QT'에 집중한다. 말하자면, 설교와 모든 나눔은 'OT' 본문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이 본문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신앙적 성찰과 질문 등을 영적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 여기에 비전스쿨, 북클럽, 성경공부, 수련회 및 대학국제교회연합선교회(CICA)가 주관하는 GSM(Global Student Mission) 집회 등이 더해져 교회 지체들은 조금씩 기독교 학생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한마디로 서울대학교교회는 캠퍼스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흔적과 간증들이 넘치는 곳이며, 이런 삶 자체가 예배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모인 곳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박동열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교회 상임운영위원이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자그엘협회 대표와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총무로도 섬기고 있다.



서울대학교교회 구성원 소감

다름 속의 조화

Nandin-Erdene(서울대 국제대학원생, 유학생 동아리 ISO 회장)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다. 초기에 새로운 환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대학교교회 이야기를 접하고 구성원이 된 후, 가족을 만난 듯한 따뜻한 분위기를 느껴서 학업 생활에 큰 힘이 되었다. 또 교회의 안내로 교내 다른 유학생을 돕는 동아리 ISO(International Students Organization)의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섬긴 'ISO 웰컴 파티'를 통해서, 약 120여 명의 학생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이러한 교회에서 얻은 큰 힘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즐거운 유학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에서 누리고 느낀 사랑과 정을 가족과 동포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으로 믿는다.



문지명(서울대 약학대학 재학생)

서울대학교회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있다. 때문에 예배를 격주로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나는 처음에 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맞을까 하며 많이 고민했다.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었지만, 나만의 고민만은 아니었다. 국적이 다르기에 언어나 문화가 다르고, 그렇기에 또 가치관이 다르기에 너무나 힘들어했다. 그것이 또 서로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만들었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화를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제 서울대학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심을 느낀다.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자신과 비슷함에서 느끼는 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과 독특함을 알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조화가 아직은 서울대학교회에 여전히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름을 조화롭게 만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를 더 조화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 틀림없기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이미 봤기에 우리는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임일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생)

서울대 비전스쿨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비전스쿨은 청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지난 8개월 동안 다양한 그리스도인 리더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며 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유럽 비전트립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관찰해보기도 하였고, 각자 전공과 연관된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비전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었다. 여기서 내가 가장 나누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감사함'이다. 얼마 전, 한 친구에게 비전스쿨을 소개했는데, 어떻게 그런 기회가 있냐며 놀라워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섬김과 축복을 누렸기 때문이다. 둘째, '기대감'이다. 하나님께서 비전스쿨을 통해 나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섬기시는 교수님과 간사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연구, 경영, 예술, 교육 활동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선배들의 모습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여정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성경적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

'제6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지난 2024년 2월 16일(금) 저녁부터 17일(토) 오후까지 '제6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후원으로 서울대학교(11동)에서 있었다. 참여자는 현장 등록자 약 50명과 온라인(Zoom) 참여 약 20명이었다. 포스터 상에 소개된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성경적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였지만, 구체적 취지는 '성경적 정의와 평화 및 세속적 정의와 평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교제하면서 정리하고 토론할 기회를 얻자는 것이었다. 오프닝 사회에서 석종준 목사(서울대 선교사)는 행사가 자칫 공부하는 관성의 경직된 모임이 될 것을 경계하면서 "여기는 학술대회가 아니고, 만남과 교제가 일차적 목적이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주시시켰다.

이번 '제6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에서 나눈 책은 2023년 2학기 서울대, 성균관대 기독교대학원생 북클럽이 함께 읽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윌터스토프, IVP), 그리고 카이스트 북클럽이 읽은 <역사의 그늘에 서서: 히틀러 치하 독일 신학자들의 설교>(본혜퍼 외, 감은사)였다. 한편, 둘째 날 초청 특강은 기독교 철학자 신국원 박사(총신대 명예교수)와 30년 차 현장 법률가 이병주 변호사(기독교법률가회 대표)가 강사로 섬겨주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콘서트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후원의 손길들이 풍성했다는 것이다. 장거리 참여자를 위한 남자 숙소는 서울대 기독교수회에서 '서울대 기독교인 회관'을, 여자 숙소는 서울 삼광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후원해 주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전체 식사와 간식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박동열 교수(서울대 불어교육과), 김은정 박사(서울대 불어교육과), 윤현준 교수(숭실대 기계공학부) 등의 후원 손길에 의해서 채워졌다.

첫째 날(2/16, 금, 저녁 7:30~11:00)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총 8장)를 가지고 함께 정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80분 발제(각 10분씩), 80분 자유토론으로 구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세계 형성적 기독교(정문선, 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 2장 근대 세계체제(채민석,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3장 리마인가 암스테르담인가?(조예상, 서울대 사회복지학 석사), 4장 부자와 가난한 자(고성중,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5장 민족과 민족의 투쟁(김동석, 서울대 서양고전학 석사과정), 6장 기쁨의 도시(김은진, 서울대 디자인학부 박사과정), 7장 정의와 예배(임찬송,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8장 이론과 실천(김다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박사과정). 사회자 김은정 박사(서울대 불어교육과)는



각 발제 후 뜨거워진 자유토론의 열기로 주어진 시간 내에 모임을 마무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정도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이 토론의 열기가 숙소에 가서도 이어져 새벽 6시까지 후속 토론과 교제의 시간을 이어갔다고 한다.

둘째 날(2/17, 토, 오전 9:30~오후 12:40)은 윤헌준 교수(숭실대 기계공학부)의 사회로 1부 책 나눔과 2부 초청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1부는 나치의 세상 정의를 성경적 정의로 맞선 신학자들의 설교가 담긴 책, <역사의 그늘에 서서>를 세 명의 발제자를 통해 정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첫 발제에서는 탁장한(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이 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역사적 배경(제3 제국에서의 선포) 부분을 정리했고, 이어서 조나은(성균관대 교육철학 석사과정)과 전향록(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섯 신학자의 설교를 소개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약 50분 동안 자유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초청 특강으로 신국원 박사와 이병주 변호사가 각각 20분씩 ‘성경적 정의와 평화 및 세상적 정의와 평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후 참가자들의 소그룹 토론과 전체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콘서트의 열기는 주어진 시간에 마치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도 하였다. 즉 점심 식사 장소로 예정했던 대학원 기숙사 식당의 마감 시간 1시 30분을 넘겨, 미리 구입한 식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6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는 준비 과정 자체가 모두 은혜였고 새 역사를 만드는 여정이었다. 이번 북 콘서트의 의미와 가치는 한국 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신앙과 학문, 영성과 지성의 이원화 극복에 있다는 사실과 연동되어 있다.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는 매년 분명한 비전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 비전은 새벽이슬 같은 각 캠퍼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영성과 지성, 신앙과 학문의 일원화된 균형감을 가지고 잘 자라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 청년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축복 통로로, 우리 시대 요셉, 다니엘, 다윗, 에스더 같은 존귀하고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자라갈 수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세상과 교회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열매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FAITH & LIFE**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II) : 생애와 배경



19세기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판 프린스터리(Groen van Prinsterer, 1801-1876)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게 큰 영향을 준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그는 개신교 정통주의 신앙인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반신앙적 성격을 주목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당 창당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판 프린스터리의 사상을 다루는 것은 초기 네덜란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기에, <신앙과 삶>은 ‘온전한 지성’ 지면을 통해 3회에 걸쳐 간략히 나누고자 한다.

흐른 판 프린스터리(Groen van Prinsterer)의 부친인 야코부스 판 프린스터리는 아들도 자기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아들을 위해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판 프린스터리는 레이든 대학의 법학과 인문학부에 등록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와 현대의 문학, 철학, 법, 역사 등 인문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했다. 1823년에 판 프린스터리는 그가 등록한 두 개의 학부 각각에 논문을 제출하여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논쟁에서 판 프린스터리가 구사한 라틴어는 당시의 가장 뛰어난 라틴어라는 찬사를 받았다. 졸업 후에 헤이그에서 한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그는 부친의 주선으로 윌리엄 1세의 비서가 되었다(1829-1833). 당시 남부와 북부 네덜란드(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던 윌리엄 1세는 뛰어난 왕으로서 거의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었다(1813-1840). 내각과 의회는 거의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그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류하여 왕에게 올리고 때로는 왕의 명령을 작성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비서인 판 프린스터리의 일이었다. 그는 거의 매일 왕을 만났다. 이것은 그에게 현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현장 경험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되었다.

판 프린스터리는 왕가인 오렌지가 속해 있었던 네덜란드개혁신교회(Dutch Reformed Church)의 회원이었다. 기독교가 그에게 전혀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직까지 확실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변개를 경험하고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판 프린스터리는 과거에 누리던 호사와 세속적인 즐거움을 뒤로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투신하였다. 그는 이전의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술회했다. “종교를 별개의 것으로 여겼지, 우리의 진 존재와 결합되고 직조되어야 하는 삶의 원리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고백은 당시 네덜란드를 감싸고 있던 온당한 합리주의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브뤼셀로 돌아와 궁정 목사 장-앙리 메를 도비네(Jean-Henri Merle d'Aubigné)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도한 업무와 내적 긴장으로 쇠약해진 판 프린스터리는 1833년

1월 중병을 앓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마침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마음에 평화를 얻었다. 예전 신앙에 대한 그의 솔회는 그 이후 그의 신앙의 성격을 보여 준다. 곧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의 전 존재와 직조된 삶의 원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정신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¹ 라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고백과 닮아 있다.

그는 1833년에 왕의 비서직을 사임하면서 왕가의 역사 문서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그 자리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오렌지가의 역사적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판 프린스터러는 그 문서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2차 사료를 모은 후에 그 내용을 출판하여 네덜란드 역사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개혁 신앙에 충실했던 그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역사는 하나님 뜻의 구현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종교개혁 시대부터의 네덜란드 역사를 연구하면서 과연 네덜란드 역사가 그러하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1846년에 출판한 책 <조국 역사 핸드북 Handboek der Geschiedenis des Vaderlands>은 그의 생애 동안 널리 회람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동안 기독교 학교의 표준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는 종교개혁 시대에 오렌지가의 윌리엄 1세가 네덜란드의 독립과 개신교 신앙의 확립을 위해 스페인에 대항하여 싸워서 마침내 네덜란드를 독립된 개신교 국가로 세운 역사 속에서 네덜란드의 섭리적 존재 이유를 발견했으며, 그것을 네덜란드가 국가로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다름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결과 유럽으로 퍼져 나가는 인본주의 사상이었다. 하여, 판 프린스터러는 프랑스 혁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인본주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는 혁명의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근본 원리에 집중하였다. 그가 혁명에 대해 분석한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가 ‘혁명’이라고 말할 때에 의미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어떤 구체적인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통치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역사의 주인으로 주장하는 모든 사상과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책으로 출판된 그의 강연 <불신앙과 혁명>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혁명은 모든 불신앙적 사상과 운동과 그 결과물을 가리킨다. 판 프린스터러가 살았던 역사 시기에는 그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되어 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구체화되었을 뿐이다. **FRITH & LIFE**

1 There is not a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of our human existence over which Christ, who is Sovereign over all, does not cry, 'Min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2024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 기독교세계관 연구 40년과 위기의 시대

일시 : 2024년 5월 18일(토) 13:00~18:00 (대학원생 10:00~12:00)

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길 65)

주제강연 (1부) : 발표 1 : 자연 재해와 회복력에 대한 기독교 창조질서 | 장순홍 박사 (부산외대 총장)
발표 2 :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 | 김정섭 박사 (UNIST 교수)

주제강연 (2부) 소장학자의 기독교세계관 연구

발표 1 김셋별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오하이오주립대 교육심리학 Ph.D),
발표 2 탁장한 박사 (서울대학교 강사, 서울대 사회복지학 Ph.D)

일반주제 분과발표 논문신청 안내

2024.04.20(토) 논문신청 및 요약본 마감

2024.05.01(수) 논문 전문 제출 마감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9권 1호(3월 31일 발간)

<신앙과 학문> 29권 1호는 11편의 논문 투고 중에서 총 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제6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행사 완료)

주제 : 성경적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

일시 : 2024년 2월 16일~17일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107호

관련 동영상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前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임기 : 2023.01.30.~2025.01.29.)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박해일(경희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총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숭실대 교수), 부총무 박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용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 CTC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 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 5학기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가 진행 중이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제5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과 어린이세계관 교육을 준비하는 '제4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이 진행 중이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천로역정> 읽기'가 진행 중이다.
- 대학생 교육 : 아신대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수업이 진행 중이다.
-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 : 수영로교회(이규현 담임목사)에서 2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5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에서 5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가 진행 중이다.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개



《천로역정》 존 버니언 지음 | 윤종석 옮김 | 전면칼라 512면 | C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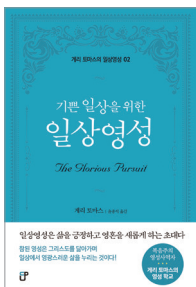
- 릴랜드 라이크의 <천로역정 가이드> 수록

“이 책을 적어도 백 번은 읽는 것 같다. 읽어도 읽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책이다.”

- 찰스 스펠전

“오십 년이 넘는 동안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 읽었다. 모든 고전 중에서도 뛰어난 고전이다.”

- 제임스 패커



《기쁜 일상을 위한 일상영성》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340면 | CUP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스승으로 다시 세우라!

이 책은 기독교 영성이나 제자도가 고단한 훈련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여정임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4년 1월, 2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1월	2024년 2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1월	2024년 2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810,000	8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300,000	5,455,000
	임원회비	640,000	640,000		기타급여	400,000	1,300,000
	일반회비	4,167,500	4,122,500		소계	5,700,000	6,755,000
	기관후원금	2,750,000	3,2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93,826	526,939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69,965	228,043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4,000	72,780
	VIEW후원금	1,110,000	1,130,000		소모품비	29,430	142,000
	기타후원금	0	0		식비	333,900	273,470
	월보구독료	323,500	545,000		복리후생비	0	0
	학술지원금	0	0		퇴직연금	464,435	426,28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4대보험료	923,130	921,820
	기타	0	0		회의비	112,130	571,460
					회계용역비	55,000	38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275,000	13,390	
			기타(지급수수료)		144,126	370,593	
소계	9,861,000	10,567,500	소계	3,854,942	4,781,775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59,990	1,000,54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219,715	1,060,26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721,290
	기금차입	0	0		발송비	70,000	636,71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472,160	465,120		소계	70,000	3,358,000
				기타	세금	64,360	37,360
			잡비		800	300	
소계	472,160	465,120	소계		65,160	37,66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20,000	500,00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20,000	5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70,000	11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3,055,100	349,000
	학술지게재료	0	0		학술지발송비	886,000	0
	저작권료	533,400	0		학술지심사료	870,00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0	0
	소계	603,400	110,000		소계	4,811,100	349,00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974,075	999,68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999,680	1,128,170
	전월 이니시스 입금	10,000	2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20,000	10,000
	소계	984,075	1,019,680		소계	1,019,680	1,138,170
당월 수입액		11,920,635	12,162,300	당월 지출액		16,760,597	17,979,870
전월 이월액		26,117,019	21,277,057	차월 이월액 (잔액)		21,277,057	15,459,487

* CMS, 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4년 1월)

3천5백 생명의강,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근, 광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셋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손영일,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백예은, 손화정, 이은소, 전영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용, 권경호, 기민석, 길원평, 김경진, 김광태, 김규옥,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연, 김민석, 김병국, 김병운,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셋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진성,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자남,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하원, 마민호, 마은희, 모상근, 모아론, 박은안, 박동현, 박명옥,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종욱,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희,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희,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유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은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하,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장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재성, 정희원, 제양규, 조경태,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선,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김경희,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용란, 구준호,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해일, 박홍식, 백은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숙, 윤재림, 이건, 이기서, 이연우, 장인숙, 전명희, 정훈, 조주영, 최현석, 최현준, 한동빈, 허정도,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백덕민, 사호형, 서성록, 손화철, 송태현, 신혜경, 양규리,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준, 최용준, 추명순,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강석분, 강영란, 구준호,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정모,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김혜정,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양희준, 황준용, 6만 김규모, 석종준, 송종철, 이연도, 장상원, 7만 유지운,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12만 김민철, 김중호, 김준, 김현경, 박문식, 15만 최현일, 21만 최태연,

계 7,131,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삼일교회

계 2,800,000원

전체 9,931,000원

회원후원

(2024년 2월)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근, 광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셋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은미,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홍승기,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백예은, 손화정, 이은소, 전영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용, 권경호, 기민석, 길원평, 김경진, 김광태, 김규옥,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연, 김민석, 김병국, 김병운,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셋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진성,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자남,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모상근, 모아론, 박은안, 박동현, 박명옥,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종욱,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형,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지은,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희,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희,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유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하,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희원, 제양규, 조경태,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선,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강용란, 구준호,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정모,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김혜정,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양희준, 황준용, 6만 김규모, 석종준, 송종철, 이원도, 장상원, 7만 유지운,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12만 구정화, 김민철, 박문식, 최홍영, 15만 최현일, 20만 양성만, 25만 홍숙의,

계 7,297,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6만 고신대학교도서관, 아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로고스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삼일교회,

계 3,370,000원

전체 10,667,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전(前)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홍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정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24 Spring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기독교세계관 연구 40년과 위기의 시대

2024.05.18(토)

부산외국어대학교

13:00-18:00

주제강연 | 분과발표

10:00-12:00

대학원생세션

1. 주제강연 및 패널토의

1. 자연 재해와 회복력에 대한 기독교 창조질서

장순흥 총장

부산외국어대학교

2.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

김정섭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패널토의

2. 소장학자 발표

김셋별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 연구원

탁장한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분과발표

※기독교학문연구회 40주년 특별세션 : 기독교세계관 세미나 (신국원 이사장/총신대명예교수)

대학원생, 경제 · 경영, 인문학, 세계관, 교육학, 기술 · 과학, 공연 · 예술, 학제간연구

자유주제 발표논문신청

2024. 04. 20(토) 논문신청 및 요약본 마감

2024. 05. 01(수) 논문 전문 제출 마감

신청 · 참가

bit.ly/2024춘계학술대회

논문제출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 새로남교회

문의 02-3272-4967(학회) / gihakyeon@gmail.com

